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北韓 美容 實態에 關한 研究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朴 恩 珠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旻 佺

北韓 美容 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ctual Beauty Condition
in North Korea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 術 學 科

헤어디자인專攻

朴 恩 珠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旻 佺

北 韓 美 容 實 態 에 關 한 研 究

A Study on the Actual Beauty Condition
in North Korea

이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8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뷰티 藝 術 學 科

헤어 디자인 專 攻

朴 恩 珠

朴恩珠 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4
3. 연구 범위	5
II. 북한의 미용산업 현장 및 실태	7
1. 북한의 미용산업	7
2. 북한의 유행스타일	21
3. 북한간행물.....	43
4. 새터민의 북한미용에 대한 구술.....	65
III. 남북한의 미용용어 비교 및 머리모양.....	72
IV. 결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8

표 목 차

<표 1>	머리모양.....	24
<표 2>	남북한의 머리이름.....	25
<표 3>	시대별유행 여성 헤어스타일.....	38
<표 4>	시대별유행 남성 헤어스타일.....	38
<표 5>	북한의 패션스타일	42
<표 6>	육모제의 유효성분.....	54
<표 7>	일반 머리물비누의 기본조성.....	62
<표 8>	린스의 기본조성.....	62
<표 9>	새터민의 희망직업.....	66
<표 10>	새터민 인적사항.....	67
<표 11>	남북한의 미용용어 비교	73
<표 12>	여러 가지 머리이름.....	75
<표 13>	남성의 머리모양.....	76
<표 14>	여성의 머리모양.....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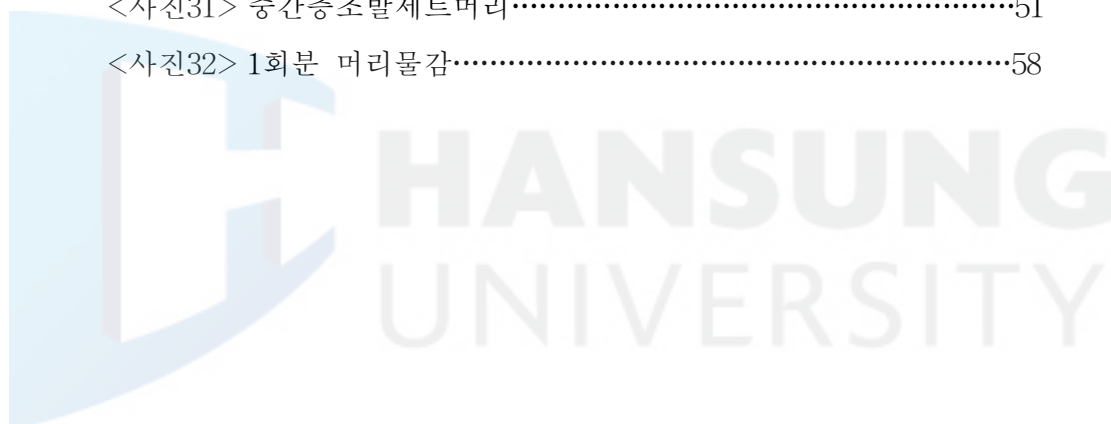
그 립 목 차

<그림 1> 패기머리.....	46
<그림 2> 해살머리.....	46
<그림 3> 동색머리.....	46
<그림 4> 물결머리.....	48
<그림 5> 갈매기머리.....	48
<그림 6> 혁신머리.....	48
<그림 7> 머리칼 감개와 머리칼 감은 상태.....	53
<그림 8> 증기 파마기의 구조.....	53
<그림 9> 감개통과 감개덮개.....	53

사 진 목 차

<사진 1> 창광원의 미용실모습.....	9
<사진 2> 남포시 소재의 미용실.....	9
<사진 3> 창광원의 피부 관리실 모습.....	14
<사진 4> 북한의 화장품.....	15
<사진 5> 신의주 화장품 포스터.....	16
<사진 6> 룡라도 화장품.....	17
<사진 7> 봄향기 화장품.....	19
<사진 8> 북한의 미용기구를 이용하여 점을 뺀 모습.....	20
<사진 9> 북한에서 제작 시판되는 헤어핀.....	27
<사진10> 시대적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머리단장.....	29
<사진11> 남성 보통머리.....	30
<사진12> 실내에서 일하는 남성 헤어스타일.....	31
<사진13> 남성 머리 형태표.....	31
<사진14> 북한여성의 땡은 머리단장.....	32
<사진15> ‘창광원미용’과이 잡지에 소개된 인기 헤어스타일.....	33
<사진16> 여성 머리 형태표.....	33
<사진17> 대학생머리.....	34
<사진18> 여성 머리모양.....	34
<사진19> ‘창광원미용’과 이 잡지에 소개된 인기 헤어스타일.....	35
<사진20> 부인 중간머리.....	40
<사진21> 중간머리에 앞머리를 내린 스타일.....	40

<사진22> 중간머리를 퍼머하여 온순해 보이는 스타일.....	40
<사진23> 단발머리 시술장면.....	41
<사진24> 여성머리장식.....	47
<사진25> 파도식 흐름을 낸 건발머리.....	49
<사진26> 무거운층조발 세트머리.....	49
<사진27> 짧은 조발머리.....	50
<사진28> 웃머리에 생기를 낸 세트머리.....	50
<사진29> 높은층 조발과 건발머리.....	51
<사진30> 흐름식파장의 머리형.....	51
<사진31> 중간층조발세트머리.....	51
<사진32> 1회분 머리물감.....	58



I. 서론

1. 연구 목적

인간이 미를 추구하고 미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시대부터 미용을 위한 노력이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꾸준히 지속되어지고 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흔히 외적인 이미지나 용모로 표현되며 사람들은 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기도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및 의상 등을 활용한 이미지 관리에 노력한다.

한 시대의 문화는 가치관, 이념, 생활양식, 예술양식,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 변화의 속도와 성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미용은 이러한 문화현상을 잘 나타내는 요소로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미의 기준은 개인적인 선호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의식과 변화를 반영하며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고, 개인의 외형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도덕적 관념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미용행태도 시대별 사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분단 6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 사회, 문화의 이중적 구조로 개인 가치관의 변화 이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친 이질화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2008년 현재 탈북자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과거보다는 북한사회가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후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환경을 볼 때 정치, 경제적 통일보다 더욱 힘든 것이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것이다. 올바른 사회문화적통합의 기반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시작의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북한을 직접 경험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북한 주민의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특히 주민 생활문화 중에서 북한주민의 미용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개인의 직업이나 가치관 또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유행의 흐름에 따라 머리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도 하고 개인의 생각에 의하여 미용용품을 구입하고 미용업체를 선택, 이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양식에 맞는 머리단장을 권장하고 있고, 당 간부나 고위층 인사가 아니면 미용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할 형편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패쇄적인 사회성 때문에 의상, 머리, 화장 등에 있어 고상하고 단정한, 전투적이면서 소박한 머리단장을 요구하고 있다.

1989년 평양축전¹⁾ 이후로 서구적 문물과 자본주의 물질이 불면서 북한에서도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의 의상과 화장, 머리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사회주의시대에 맞는²⁾ 사회주의생활양식³⁾으로 실용적인 조선옷을 제안하여 긴치마는 명절이나 행사시에 착용하고 무릎길이의 짧은치마를 착용하므로 노동생활에 편리하고 아름답게 개량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조희선, 김병원(1990),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 활용』,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 :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고취하고자 공산권과 제3세계 및 서방권의 일부 진보적 사회주의 청년, 학생단체들이 참가하여 단결된 역량을 시위하고 친선을 도모한다.’, 사회과학연구, 제 6권1호, p.1

2) 김일성(1982), 『김일성 저작집』 제16권,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p.209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의 미감도 달라지고 생활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전통을 바로 살리면서 현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의복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3) 김일성(1983), 『김일성 저작집』 제25권,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p.291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로 다양한 복식과 함께 여성의 머리모양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얇은 무늬 있는 삼각 머리 수건을 쓰게 되었고 나일론, 양산, 굽 높은 구두가 도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북한여성들은 거의 색조화장을 하지 않고 간단한 눈썹화장이나 입술화장을 하는 정도였다. 이는 화장하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여성미로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⁴⁾ 1980년경 평양의 남녀 시민에 대해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주민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을 인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⁵⁾.

이러한 정책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잡지 등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의복, 머리모양과 손질법, 화장에 관한 홍보가 활발히 나타났다. 이때에는 서구적인 미의식의 반영⁶⁾을 엿볼 수 있는데 서구적 미인 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름한 얼굴과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선명한 색조화장의 서구식 입체화장이 도입되었다. 또한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가 착용 되었다.⁷⁾

이렇듯 북한의 사회주의이념과 사회체계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듯 변화하는 북한의 미용생활상을 이해하고 주로 정치적인 부분의 연구들에만 편중된 것과 달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특히 미용분야를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인 연구로 접근 하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미용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남북한 분단 60년 이상을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이념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미용 실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통일 이전에 언어, 사회,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요구되는 바,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4) 김여경(2001),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p.19

5) 국토통일원(1986), 『북한의 실질 소비생활수준 분석』, 서울 ; 국토통일원, p.109

6) 중앙일보, 200년6월14일자

현재 북한에서는 키가 160cm 이상 늘씬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하며 피부가 깨끗한 사람을 미인으로 선호하고 있다. 남한에서와 같은 마른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

7) 상계서, p.27

첫째, 북한의 미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이질화된 미용용어를 비교분석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둘째, 북한의 유행스타일과 미용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국내보도 된 기사와 북한자료를 정리하여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있다. 셋째, 북한 미용계의 실상을 새터민의 구술증언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끝으로 북한의 실상을 미용인의 견지에서 접근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꾀하는데 일조하고, 통일을 여는 발걸음이 되어 후학들의 북한미용연구에 바탕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와 같이 남북한이 오랜 세월동안 교류 없이 살아온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거시적인 차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문화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접근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민족은 분단된 세월만큼 언어는 물론 사람들의 겉모습, 생활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분단의 골이 더 많이 깊어지기 전에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시대의 문화는 가치관이나 이념, 생활양식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몸치장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희망하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미의 본능에 대한 욕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머리를 소중히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으며, 머리스타일의 변화는

그 나라의 사회적인 문화현상을 짐작케 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은 사상이나 체제보다 앞서간다고 볼 때 북한의 미에 대한 가치와 미용 실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남북한의 미용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부 관련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자료를 고찰하고 국내 정착한 새터민의 면접조사법을 진행하여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경험과 비교, 해석하여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내적통합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문화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등과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와 달리 북한 연구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관련실증자료 입수 및 활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북한의 대중매체와 잡지 등을 통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현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을 통해 북한에서의 미용 실태에 관한 인터뷰를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인터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새터민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새터민 미용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다만 인터뷰의 한계와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새터민 대부분이 중국경계지역에서만 탈북을 시도하다보니 북한의 대외 보도 자료와의 차이가 발견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3. 연구 범위

남북한이 오랜 세월동안 교류 없이 살아온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거시적인 차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문화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북한연구의 타 분야와 비교해볼 때 연구주제나 연구 성과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여성의 최초의 학위논문은 박현선(1988)의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연구」로 북한의 법과 정책을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다. 이경하(1993)는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에서 사회적 영역에서는 노동주체로, 가족 내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분석하였고,⁸⁾ 류은주(1995)는 「북한여성의 사회적위상과 외양변화에 관한연구」에서 북한여성의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들의 복식과 수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과 가장 근접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의 외적인 이미지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다각적인 연구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행, 보도된 자료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유행스타일을 살펴보고, 북한자료센터의 북한정기 간행물과 영상물,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방영된 TV영상물,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통일관련 국내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미용 산업의 실태와 생활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언론에 비취진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특수성으로 새터민의 인터뷰를 보충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신분보호를 위해 새터민 1~10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북한간행물 인용의 경우 북한용어를 그대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8) 최효임 (2002),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본 북한여성 이미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1

Ⅱ.북한의 미용 산업 현장 및 실태

1. 북한의 미용 산업

1) 미용실

북한에서는 미용실이란 용어 대신 ‘편의봉사시설’이란 말로 미용, 이용, 목욕, 세탁업 등을 포함하며 이발 및 미용분야는 편의봉사의 한 형태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문화생활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주민들의 머리모양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손질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서 문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인민봉사총국 산하 각 시, 군의 편의봉사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와 미용원이리, 동마다 한 개씩 있으며 각각의 이발소와 미용원에는 보통 3~4명, 큰 곳은 10 여명 정도의 이발사와 미용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발소와 미용원은 일주일에 6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영업을 하며 수요일은 정기휴일이다. 휴일은 직종과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정해 지키게 한다.

이발소의 종류에는 일반이발소, 고급이발소, 아동이발소가 있는데 일반 이발소에서는 본인이 머리를 감으면 요금은 2003년 기준으로 1원(미화1불), 고급이발소에서는 이발사가 머리를 감겨주고 화장품을 발라주는데 2~3원이다. 이발소에 가지 않고 종합시장에서 개인 영업하는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을 경우 이발료가 일반이발소 보다 다소 싼 50~70전이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9)

여성들이 미용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경우 주로 커트는 3원, 파

9) 밀양뉴스, 2003년8월10일자

마는 5원으로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그래서 일부여성들만 미용원에 서 커트와 파마를 하며, 다수는 종합시장에서 파마 약을 직접 구입해 이웃여성들과 서로 파마를 해주곤 한다. 성인 남성의 경우 대체로 2개월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최근에는 실직 등으로 집에서 머리를 깎는 주민들이 늘어나 문을 닫는 이발소가 늘었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한 달 평균 30%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파마 약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평양에 있는 창광원, 문수원 등에는 최신시설을 갖춘 미용실이 있으며 이발소는 주민편의시설로서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양실, 대기실, 작업실, 세면장, 건조실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창광원 미용실은 서울 강남의 고급 헤어샵과 같다고 보면 된다. 미용실 내부에는 헤어스타일을 고를 수 있도록 일종의 카탈로그 역할의 ‘머리 형태표’라는 것이 있는데 헤어스타일의 명칭 대신 사람의 앞면, 옆면, 뒷면의 사진을 찍고 번호를 부여하였다. 북한 미용실의 주된 서비스는 짧은 머리를 비롯해 머리다리미로 고정한 ‘틀머리’, ‘칼치기’, ‘미안’, ‘머리빨아주기’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¹⁰⁾

이곳에는 50여명의 미용사가 일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객 생김새에 따라 100여 가지 머리스타일을 서비스하고 있다. 고위 간부 가족들과 외화를 소지한 대외부문종사자들, 재일북송교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창광원미용사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중앙당과 군부의 고위간부 가족들을 위한 미용실은 주택 단지 내에 따로 꾸려져있고 이·미용실들은 설비와 자재가 일본제 고급품이며 미용사들도 북한에서 내로라하는 일류급들이다.

10) 머리다리미는 우리의 아이롱에 해당하며 칼치기는 모발 끝선 다듬기, 미안은 미용세수, 머리빨아주기는 샴푸에 해당된다.



<사진 1> 창광원의 미용실 모습

출처 ; 연합뉴스, 2006년3월6일자, 2006년10월25일자



<사진2> 남포시 소재의 미용실

출처 ; 뉴시스, 2006년9월5일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 소속을 두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 차원에서 작성된 ‘노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 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 조직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자는 원칙적으로 조선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형태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와 집단의 필요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현실을 누구나 당연시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¹¹⁾

미용자격을 갖추는 것은 이발사와 미용사는 중학교 졸업생이나 기타 기업소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각 시, 군별로 1년에 1회 이상 이발강습소와 미용강습소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며, 미용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거주지역의 노동과 에서 직장배치를 해준다.¹²⁾ 다음은 새터민 10의 증언이다.

‘미용사와 리발사의 봉급은 해당 시, 도 정부기관에서 지불하며 봉급의 차이는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급수는 시,도 정부기관에서

11) 통일교육원(2002),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p.283

12) 상계서, p.288

기술교육을 시켜 기술능력에 따라 급수를 책정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시. 도정부가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미용실에서 일을 해요.’

미용사와 이발사들은 매년 9월 평양에서 ‘전국 이발 및 미용부문 경기’를 펼치는데 이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원정희씨는 북한의 최고미용사로 알려졌다. 가장 높은 수준의 미용기술인 ‘고3급’의 소유자이며 ‘공훈미용가’이기도 하다. 그는 이 같은 명성덕분에 대동강구역과 평양시의 ‘미용기술전습강습소’에 초빙돼 후진을 양성하고, 또 자신의 경험담을 모아 ‘미용사와 머리단장’, ‘부인머리단장’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복무하면 ‘인민의 봉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영예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라는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인민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더욱 귀중히 여겨야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지들과 인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합니다”¹³⁾

사회주의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사상이 팽배하다. 일제시기엔 리발사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일러주고 ‘깍아쟁이’라고 천대하고 멸시했지만 지금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자로 내세워주고 우대해주고 있으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이 사랑하시는 영예군인들에게 리발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리발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인민의 봉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이발소와 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양호한편이며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20~60원 정도이고 당정기관 종사자의 임금은 300~350원 정도이다. 그런데 2002년 7. 1 조치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13) 문학예술출판사(1995), 「조선녀성」, 3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34

북한의 「7. 1 경제 관리개선조치」는 경제 단위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분권화, 화폐화, 시장화를 의도하는 경제개혁정책으로서 경제 관리 체계, 분배제도, 가격제도, 재정, 대외경제부문 등 전 경제 분야에 걸쳐 시행된 획기적인 개혁조치이다.

전반적인 가격인상은 쌀 가격을 기준으로 농민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정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7. 1조치’와 더불어 쌀의 국정가격은 8전에서 550배 오른 44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쌀 가격은 다른 가격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편의 봉사시설 종사자의 경우 20~60원이던 임금이 1000원~1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임금지불에 있어서 국가가 정한 일률적 임금 지급방식이 아니라 계획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간 개별경쟁도 유도하고 있는데 미용실도 예외는 아니다. 창광원에서는 지명쟁취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¹⁴⁾

지명쟁취경쟁이란 미용사가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선정받기위해 경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에는 일이 없는 미용사가 순서대로 고객을 받았을 뿐 고객이 직접 미용사를 고르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7. 1 조치로 일한 만큼 벌어들이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손님 의사에 따라 미용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네 미용원들은 찾아오는 고객수를 늘리기 위해 얼굴 마사지를 위한 증기미안기, 증기소독기, 자외선 및 적외선 소독기, 얼굴 마찰기, 기름 흡착기 등의 설비를 구입하고 미용원 입구에는 간이 판매대를 설치해 각종 화장품, 결혼식용 꽃,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¹⁵⁾ 창광원은 2교대로 근무하고 미용사 하루 작업량은 파마2명, 커트3명이지만 손님들의 지명을 받아 의무량을 초과하게 되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곳 창광원에서는 고객의 얼굴을 컴퓨터로 영상처리한 후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을 제시해주는 컴퓨터 미용서비스가 있는데 컴퓨터

14) 연합뉴스, 2006년10월2일자

15) 연합뉴스, 2005년10월27일자

터와 연결된 디지털카메라로 고객의 얼굴을 촬영한 후 컴퓨터 화면상에서 얼굴에 맞는 여러 가지 머리 형태를 모의로 그려내 손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얼굴을 6가지 형으로 나누고 고객의 생김새에 따라 100여 가지의 머리스타일을 서비스하고 있다.¹⁶⁾ 컴퓨터 미용 프로그램 이름은 ‘꽃단장’과 ‘멋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머리모양을 개인의 사상 상태로 여겨 민족적 정서와 체질,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 이전의 규정에 비하면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배우자의 직업은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방송인, 광고인, 컴퓨터 관련 직종, 벤처 사업가등 자유분방하면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종인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평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사진사’로 평양을 방문한 해외교포나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들은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들 외에 ‘신종부업’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업범위도 점차 넓어져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당 간부, 군 장교, 정부기관원등에서 기관사, 운전원, 요리사와 외화를 만지는 무역관계자, 외교관, 유학생으로 달라지면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여자배우자의 경우 일상용품을 직접 취급하는 상점판매원과 미용사, 식당접대원 등이 꽤 인기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의 인기직업의 판도가 달라진 것은 8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서 조금씩 시도된 대외경제개방정책과 이와 더불어 89년 ‘평양축전’, 90년의 ‘범민족대회’를 치르면서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연합뉴스, 2006년8월22일자

17) 조선일보, 2006년1월9일자

18) 디지털북한백과사전 (www.kplibrary.com)

2) 피부미용실

북한에도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 이·미용실 등에서 피부미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부쩍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2002년 하반기 부터는 정식 체계를 갖추고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생겨났다.

‘미안사’ 라는 피부미용 전문자격증이 정식으로 생긴 것이다. 8단계로 이루어진 자격증은 가장 높은 고급3급부터 고급2급-고급1급-5급-4급-3급-2급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인 1급으로 돼있다. 19)

이들은 피부의 특성과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문지식과 함께 실기능력을 갖추어야 합격할 수 있다. 창광원의 미안실에서는 피부 세척, 얼굴 문지르기(Massage), 면도를 한 후 온열, 공기마찰, 저주파 등의 기구를 활용하여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고 영양크림을 발라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45~60분정도 제공한다. 피부미용실도 일반여성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부 부유층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 3>창광원의 피부 관리실 모습

출처 ; 연합뉴스, 2005년1월20일자, 2006년10월25일자

19) 한겨레신문, 2005년1월20일자

3) 화장품

북한 여성들은 보통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16~20 세경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간혹 입술연지를 진하게 바르기라도 하면 주위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아 화장을 해도 아주 연하게 하는 편이다. 북한의 공업출판사가 최근 펴낸 ‘화장품과 우리생활’이라는 책에서는 피부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포함한 피부보호 방법부터 화장품의 종류와 기초, 색조화장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피부노화의 원인과 예방책, 계절에 따른 피부보호 방법, 피부상태와 식생활의 관계 등을 알려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의 종류로 크림과 습윤제, 유연제, 유화크림, 콜레스테롤 화합물, 중성세면비누의 쓰임새를 언급하고 파운데이션 사용법, 자연스럽게 보이는 눈 화장비법, 얼굴 한증법, 탈모예방법 등 색조화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²⁰⁾



<사진 4> 북한의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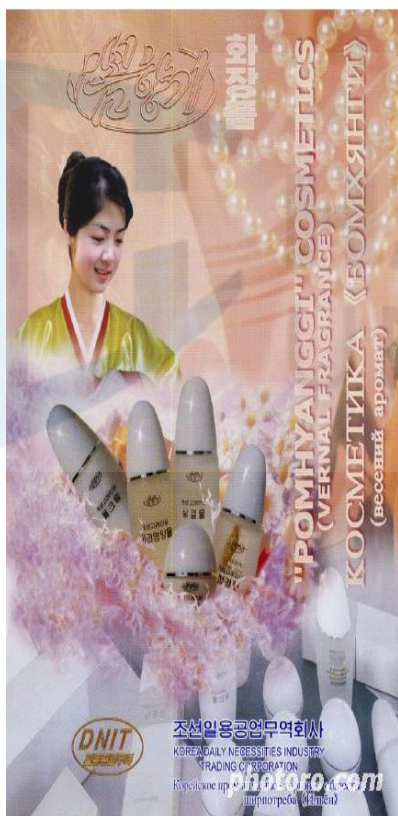
출처 ; <http://boom.naver.com/1/20061009183356577>

20) 연합뉴스, 2007년7월28일자

화장 순서는 일반적으로 살결물, 물 크림, 돌분이 전부이다. 멋쟁이들은 여기에 눈썹연필과 아이라, 구홍(Lipstick)을 곁들인다. 북한여성들은 대부분 기초화장을 중시하고 색조화장품은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화장품의 질이나 화장테크닉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정도이고 화장법은 대부분 짙고 평형에 가까운 눈썹, 건조한 느낌의 파운데이션, 립글로스 대신 건조한 립스틱을 하고 있다.²¹⁾

북한에서는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등에서 살결물(Skin), 물크림(Lotion), 분, 분크림(Foundation), 구홍, 눈썹연필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종류도 적고, 생산물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화상점이 생겨나면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트윈케이크, 볼터치, 마스



카라 등이 알려지게 됐으나 이것은 상류층 여성들이나 연예인들의 전유물이다. 상류층 여성들은 외화상점들을 통해 고급화장품을 구입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름조차 모른다. 일반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피야스카²²⁾’라는 분 크림 뿐이다.

피야스카는 원래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제품의 질이 떨어져 사용을 꺼리고, 질이 좀 팬찮은 것은 평양과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생산량도 적어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5>신의주화장품공장 포스터

출 처 ; <http://cafe.naver.com/thecp/645>

21) 동아일보, 2002년8월22일자

22) ‘피야스카’는 러시아 화장품의 파운데이션이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릉라도 화장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피부의 노화방지와 신진대사 촉진에 특효가 있고 기초화장품인 개성 고려인삼 살결 물과 개성고려인삼 물 크림은 천연미용성분을 첨가해 피부의 흑색소 형성을 방지하고 인삼과 당귀, 비타민E의 약용효과로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개성고려인삼 크림과 유액분크림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피부의 어떠한 결점도 가려주며 자외선방지크림은 주근깨와 검버섯을 막는 데 특효가 있는 제품이다.²³⁾



<사진 6> 령라도 화장품

출처 ; <http://blog.naver.com/ysan777/70003842717>

신의주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는 살결물, 물 로션, 밤크림, 분 크림, 머리영양물 이렇게 한셋트에 1000원정도이고 일반노동자 평균 한달 임금이 2000원이라고 볼 때 꽤 비싼 편이어서 북한여성들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1차적 욕구인 먹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일반여성들의 화장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23) <http://blog.naver.com/ysan777/70003842717>

‘봄향기’ 브랜드로 출시된 이 제품에는 피부유아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는 개성고려인삼을 비롯한 각종 약초와 게 껍질, 누룩산, 바닷가감탕(진흙)추출물, 유기금강약돌, 은행나무 가공물 등 30여 가지의 천연 기능성 약재가 들어있다. 색소, 향료, 과산화물, 살균제, 방부제등 합성유화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천연약재로 만든 이 제품은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두 번이나 금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다.

“이 화장품은 겉보기를 위한 ‘미’ 가아니라 피부가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천연 영양물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건강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합성유화제가 피부의 심층까지 침투되면 세포의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을 혼란시켜 놓는 후과(Result)를 낳고 천연기능성 합성물만이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내로 피부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²⁴⁾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는 ‘옥수수 죽을 먹어도 화장품은 고급을 써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 ‘봄향기’ 화장품은 인기는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생산량이 적은데다 값이 비싸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북한 국영 화장품보다 질이 낮지만 값이 싼 중국제를 사용하는 여성들도 많으며 당간부 가족 등 일부계층은 프랑스제와 일본제를 선호한다. 이외에도 국제시장을 겨냥해 각종 기능성 천연 향료 개발도 활발한데 1984년 설립된 평양 천연 향료 연구소는 식물에서 나오는 정유를 이용한 ‘청송향’, ‘지능향’ 등의 향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4) 연합뉴스, 2007년3월25일자

4) 미용성형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수술, 눈썹문신, 입술선 살리기, 얼굴 주름 펴기, 주근깨 없애기, 점 빼기 등 ‘미용성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이나 개인 시술업자로부터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수술이 번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한몫을 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의사들이 생계수단으로 간단한 쌍꺼풀수술을 적극 시술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북한엔 독립적인 성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주로 숨씨가 좋다는 소문을 듣거나 소개를 받은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받는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의 성형수술을 강하게 비난하며 죄악시했던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쉬쉬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함경도 등 중국국경이 가까운 지방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기술을 이용해 눈썹과 입술라인을 바꾸는 성형수술이 많이 이루어진다. 눈썹을 모두 제거하고 문신하는 방법으로 눈썹모양을 새로 만들거나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입술 선을 바꾸는 것이다.



<사진 7> 봄 향기 화장품

출처;<http://cafe.naver.com/thecp/645>

미용성형비용은 함경북도 청진시 도병원의 경우 주름 펴기와 주근 깨 없애기는 2008년 기준으로 북한 돈2만~3만원, 눈썹문신과 입술선 살리기는 5천원, 쌍꺼풀은 5~8천원사이이고 시내보다 농촌으로 들어갈 수록 가격은 더 비싸진다.²⁵⁾ 농촌 여성들은 ‘바쁜 농사철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다닐 때가 많은데 눈썹과 입술을 문신하고 나면 화장을 안 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지금처럼 먹고 살기 바쁜 시기에 화장품을 사지 않아도 되니 좋다’ 며 인기가 있는 편이다.



미용성형이 인기이기는 하지만 뼈를 깎거나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수술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²⁶⁾ 고위층이나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들은 코를 세우거나 가슴확대 수술을 하기도 한다.



<사진 8> 북한의 미용기구를 이용하여 점을 뺀 모습
출처 ; 연합뉴스, 2005년2월24일자

25) 연합뉴스, 2008년9월30일자

26) 세계일보, 2005년10월31일자

2. 북한의 유행스타일

1) 북한의 머리이름

북한의 머리는 대부분 남녀 모두 짧고 단정한 머리를 볼 수 있고 여성의 머리이름은 꽃 이름처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1) 남성의 머리모양

북한은 남성 헤어스타일로 ‘정서와 체질에 맞도록 단정하면서도 소박해야 하고 나아가 얼굴형, 체격, 나이, 직업, 계절 등에도 어울리는 이른바 ‘사회주의적’인 스타일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의 잡지 ‘천리마’에서 남성들은 머리를 깎을 때 얼굴이 계란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얼굴형에 따라서도 네모 형은 위 머리를 높이고 옆머리를 부풀게 하고, 긴 형은 윗머리는 낮게 옆머리는 올라가면서 부풀게 하며, 세모 형은 윗머리를 둥글게 하면서 이마 양편의 머리는 약간 길게 하고, 둥근형은 전반적으로 높게 하면서 윗머리는 부풀게 하고 옆머리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한다.²⁷⁾남자군인들은 93년3월 준전시, 훈련시, 전시수행능력 강화 명분으로 전사들은 삭발을, 사관들은 0.7mm, 군관들은 스포츠형으로 머리 형태를 통일시켰다.

한편 북한남성,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갈매기머리, 패기머리, 구름머리, 송이머리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 외에 남성들의 이발형태는 약 25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갈매기머리: 날아가는 갈매기를 연상케 하는 헤어스타일로서 앞머리카락의 흐름을 두텁게 주면서 이마중심까지 늘어뜨렸다가 다시위로 올려줌으로써 마치 날아가는 갈매기 날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

27)디지털백과사전(kplibrary.com)

다. 청년층은 물론 중년층에서도 비교적 많이 선호한다.

②패기머리: 머리를 전반적으로 짧게 깎은 머리 형태로 김정일의 머리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은어를 붙여 ‘고슴도치’ 라고도 부른다.

③구름머리: 뭉게뭉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구름장식으로 단장한 머리 형태이다. 헤어드라이를 이용해 머리카락 흐름을 가볍게 이마 아래 방향으로 폭넓게 장식해 주면서 옆으로 넘겨 마치 두둥실 떠있는 구름처럼 보이게 한다.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

④송이머리: 송이머리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짧게 자른 다음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앞 머리카락을 약간 길게 또는 짧게 다스려 소나무 송이처럼 장식함으로 간편하면서도 귀엽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써 인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한다. 다른 형태는 앞 머리카락을 좀 길게 하여 옆으로 살짝 빗어 넘긴 것으로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한다.²⁸⁾

(2) 여성의 머리모양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도 파마머리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천리마 등 북한의 잡지들은 여성들의 머리모양과 관련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갓 진출한 여성들은 머리를 살짝 지저 밑머리만 파마기가 있게 하고 머리를 핀이나 띠로 단장해 앳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고 나이가 든 처녀들은 머리를 곱게 지저 곱실곱실한 파도모양이 생기게 하여 자연스럽게 빗어 내리거나 머리핀으로 장식하도록 하는 등 연령과 얼굴형, 체형에 따른 스타일을 권장하였다. 최근에 북한당국은 뒷머리를 길

28) 디지털북한백과사전(www.kplibrary.com)

게 하거나 풀어헤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여군들의 머리 형태는 기존의 단발머리에서 스포츠형머리로 모두 바뀌었다. 특무상사이하의 여자병사들은 머리 형태를 모두 스포츠형으로 바꾸고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도록 하며 뒷모습을 볼 때는 남녀구별이 안 된다. 여자군관들은 단발머리로 통일하였고 파마도 약간 곱슬거리는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은 남자고등중학생은 앞머리가 2~3 cm, 대학생은 3~4cm가 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노동 교화소에서 최장 6개월씩 교화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밖에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로는 함박꽃머리, 청춘머리, 파도머리, 수국화머리, 대학생머리 등이 있다. 한편 북한 여성들은 옷차림의 변화와 함께 머리모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송진을 이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송진무스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송진무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송진을 그릇에 담아 열을 가해 거품과 찌꺼기들이 뜨도록 끓인 다음 거품과 찌꺼기를 말끔히 걷어낸다. 이것을 식혀 덩어리 송진을 만든 후 세숫비누 절반 크기로 잘라 약 4L가량의 물에 넣고 또 끓인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껌과 같은 하얀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건져내면 무스가 된다. 이렇게 하여 만든 송진무스는 한번 끓여 10여 일 간두고 쓸 수 있으며 냄새가 향기롭고 시원할 뿐 아니라 비듬이 생기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다.

①함박꽃머리: 뒷머리를 탐스럽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함박꽃처럼 장식한 머리 형태로서 앞머리는 얼굴형에 맞게 간단한 장식을 달고 뒷머리는 매끈히 빗어 내리다가 밑머리 부분에 와서 활짝 핀 함박꽃처럼 장식한다. 중간정도의 길이로 조발하고 층을 많이 내어 퍼머를 강하게 하고 세트로서 완성한다.

②청춘머리: 젊은 처녀들에게 어울리는 매력적인 형태로서 머리를 중간정도 길이에 직선에 가까운 반달형으로 조발하여 층을 거의 내지 않

은 상태에서 파마를 약간하고 건발로서 완성한다.

앞머리에 탄력성이 강한 구부림과 귀부분의 옆머리를 약간 길게 하여 앞으로 살짝 구부려 장식을 해 준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갓 진출한 예비숙녀들 사이에서 많이 한다.

③파도머리: 중간정도 길이의 머리에 파도가 지나간 것처럼 머리장식을 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머리 형태이다. 목 부분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중간 길이에 층을 너무 많이 내지 않고 조발하여 파마를 약하게 한 후 건발로서 완성한다. 대체로 키가 크고 목이 긴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율동적인 머리 형태다.

④수국화머리: 앞머리와 옆머리를 강한 파장으로 장식해 주고 뒷부분에는 부드러운 파장을 지어주면서 내려오다가 밑 부분에 와서 활짝 피어난 수국 화처럼 아름답게 장식한 머리 형태이다. 20대에서부터 30대의 처녀들과 젊은 부인들이 많이 한다.

⑤대학생머리: 짧은 시간에 혼자서 손쉽게 할 수 있어 여자대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머리는 이마 가장자리 부분을 약간 조발하여 간편한 장식을 해주고 뒷머리는 아무런 장식 없이 소박하고 고상하게 처리한다.²⁹⁾

<표 1> 머리 모양

남자머리모양	갈매기머리, 패기머리, 구름머리, 송이머리
여자머리모양	함박꽃머리, 청춘머리, 파도머리, 수국화머리, 대학생머리

29) 디지털북한백과사전(www.kplibrary.com)

2) 북한의 유행 헤어스타일

남북분단이 되기 이전에 머리모양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처녀들은 땃기머리였고, 부녀자들은 기호(畿湖)를 중심으로 남한지역은 쪽진머리, 서북지역은 엮은머리를 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쪽진 머리’를 ‘쪽을 진다’라는 표현을 ‘낭자머리’ ‘낭자 튼다’고 하였고 엮은머리는 ‘테두머리’ ‘엮은머리’ ‘용두머리’라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낭자머리보다 테두머리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낭자머리가 평양기생들이 하는 머리모양이어서 반가부녀들이 이를 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양에서 사용한 머리모양의 명칭을 보면³⁰⁾다음과 같다.

<표 2> 남북한의 머리 이름

남한의 머리이름	북한의 머리이름
쪽진 머리	낭자머리
엮은머리	둘레머리,테두머리,두루머리,머릿봉
귀밑머리	새치기머리

분단되기 이전의 우리네들의 머리모양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분단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고 성장하다가 침체기와 정체기를 거치면서 식량위기와 자연재해로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었으므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급급하였을 것이다. 미에 대한 욕구나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전할 리 없고, 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80년대 TV나 신문, 잡지 등에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닐 것을 강조하고 90년대 들어서 헤어스타일이나 화장법등을 선동하듯 사회주의적 양식에 맞는 외형적인 이미지 상을 제시하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옷차림과 머리스타일이 생겨났고, 2000

30) 임선희(2005),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복식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5

년도에는 머리가 길면 자본주의 사회스타일이라며 공개비난을 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많은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머리모양에 따른 이름도 다양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천리마 시대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이라는 구호아래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79년4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주변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아래 평양, 원산, 청진등 대도시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다. 1982년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 등 외부의 다양한 패션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 주민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패션변화의 주기도 빨라졌다. 천편일률적이던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화려한 패션을 추구하고 가난한 국가사정과는 달리 평양에서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머리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89년 평양축전이후로 북한 주민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이후로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사상의 침투를 우려하여 90년대 초반에 권유하던 색깔 있는 옷차림에서 다시 단색위주의 옷차림을 권장하고 머리모양도 단속하며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사회주의양식에 알맞은 머리단장’에 대하여 연속시리즈로 방영하였고 장발을 한 남성은 실명공개를 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평양 시민들의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레이어드(머리카락길이를 조금씩 틀리게 해 층을 넣은 형식)’가 없는 ‘일자커트’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³¹⁾ 그래서 찰랑거리는 생동감보다는 차분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잘 살아난다. 사람들은 ‘검은머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 한국에서

31) 연합뉴스, 2002년6월12일자

갈색, 금색으로 염색한 걸 보면 ‘민족성 결여’라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염색은 흰머리를 검게 감추는 염색만 하고 있다.



<사진 9> 북한에서 제작 시판되는 헤어핀
출처 ; 연합뉴스, 2007년12월6일자

머리스타일은 대부분 노동하기 편리하고 단정한 단발형 머리모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파마머리든 생머리든 뒤로 돌려 묶는 스타일이 많다. 이에 따르는 핀이나 고정밴드의 종류도 다양하다. 평양대성보석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코스모스’머리핀의 첫 출시는 2007년 말로 현재 70여종의 머리핀과 리본, 집게 핀 등을 만들고 있는데 디자인과 아크릴판 가공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에 맞춰 가공된 아크릴판은 성형-연마-보석박기-금속구 접착 등의 과정을 거쳐 머리핀으로 제작된다. 북한에 유통되던 빈침(Hairpin)의 대부분이 외국제품들로, 북한여성의 구미에 맞는 제품이 얼마 없고 가격도 비싼 것들이 많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요가 많은 여성들의 보석머리 빈침을, 보석 가공 전문기술 노동자들이 많으니 잘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는 발기(Idea)를 제시, 코스모스 빈침의 개발이 시작되었다.³²⁾

32) 노컷뉴스, 2008년5월21일자

새 제품의 개발은 도안제작, 시제품생산, 상품화의 단계를 거치며 상품화를 앞둔 품평회에는 지배인, 기사장, 도안제작자, 기능공들이 참가하고 이들은 여성들의 취향을 살피기 위해 시장조사도 끊임없이 진행한다.

북한 주민들이 쪽진 머리라고 표현하는 머리는 묶인 머리의 뒤끝을 풀어헤치지 않고 동그랗게 곡선을 그려 모은 형태를 말하고 파마도 보글보글 파마처럼 웨이브를 많이 넣지 않고 머리를 뒤로 묶어도 앞머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살짝 위로 올려 닭 벼슬처럼 뻗치는 ‘핑클파마’형식이다.

또, 목선을 타고 머리줄기가 두세 개로 뿜는 단발머리 스타일도 인기가 있다. 포인트는 앞머리를 사선으로 가닥가닥 늘어뜨려 이마를 가리는 애교머리, 한국과 일본에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다가 보편화 된 스타일이다.

양복차림의 남성들은 7대3가르마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머릿기름으로 틀을 고정시킨 스타일을 많이 하고 도시 외곽의 인민복차림의 노동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포츠형 머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70년대 중고생머리처럼 1cm 안팎으로 짧은 스타일을 주로 하고 있다.³³⁾

2004년 조선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시리즈물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남성 동무들도 머리단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리단장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정신 세계가 평가됩니다.’라고 하고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단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고상하고 단정한 외모는 오늘 선군시대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의 하나’라며 소재와는 다른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심각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다.³⁴⁾

33) 동아일보, 2001년6월12일자

34) 연합뉴스, 2004년9월29일자



<사진 10> 시대적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머리단장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7일자

단발의 장점과 장발의 단점을 홍보하면서 ‘장발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더러 전혀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며, ‘되도록 살아가려는 낡고 뒤떨어진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우리식이 아닌 남의식을 본뜨려는 사람’, ‘부르주아 생활양식에 젖어 무턱대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방송에서는 평양의 멋쟁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진 최고의 복합후생시설인 창광원에서 서비스되는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다.

창광원의 이발소와 미용원에는 각양각색의 모델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머리이름을 적어 ‘머리 형태표’라는 것을 붙여놓고 그림번호를 선택하여 머리를 하고 있다. 먼저 상고머리는 얼굴이 통통하면서 둥글 넓적하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머리칼이 뾰뚱이 일어나 형태를 잡기 어려운 스타일이 하면 좋고, 머리카락을 1~1.5cm정도로 바투 깎고 청년층이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청춘머리’라고도 하고 사람을 혈기왕성해 보이게 해 ‘꽤기머리’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스타일은 ‘중간머리’라고도 불리고 ‘보통머리’라고도 하는데 이 스타일은 얼굴형이 능형이나 달걀형에 적합하며 사람을 단정하면서

도 짧잖아 보이게 하는데 이 머리는 뒷머리와 옆머리를 짧게 다스려 올리고 웃머리는 조금 길게 깎아 드리운 이 머리 형태는 늙은이와 중년 청년에게 다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



<사진 11> 남성보통머리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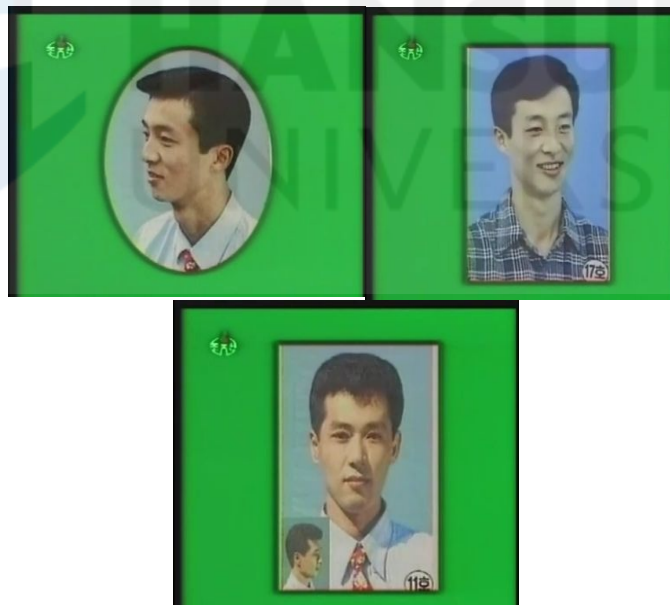
이 외에도 높은 머리, 낮은 머리, 날개머리, 햇살머리등이 있다.³⁵⁾ ‘패기머리’는 3cm이내 짧게 깎은 머리를 타원형의 곡선미로 다듬은 머리 형태이고, ‘날개머리’는 뒤흘은 짧게 치고 앞머리는 사선으로 빗어 내린 머리를 말하고, ‘햇살머리’는 앞머리5cm, 옆머리4cm, 뒷머리3cm, 윗머리4~5cm, 아랫머리 0.5cm정도로 깎아 머리카락 전체를 뒤로 고르게 넘긴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부풀게 뒤로 넘겨 빗어 해살과 같은 느낌을 주며 활동적이면서도 시원한 감을 주는 머리스타일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머리도서를 말한다. ‘동색머리’는 머리의 가장자리부분을 이발기계를 댄 것처럼 짧게 깎아 가르마를 내거나 뒤로 빗어 넘긴 스타일이다.³⁶⁾

35) 연합뉴스, 2004년9월29일자

36) 세계일보, 2002년8월27일자



<사진 12> 실내에서 일하는 남성 헤어스타일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7일자



<사진 13> 남성 머리형태표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7일자

2005년도에는 여성들의 머리스타일은 ‘고상하고 강인한 조선여성들의 정서를 담은 고전머리형태를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머리를 알맞춤하게 정하고 여러 가지 장식도구(Accessory)들로 세련미를 돋웠기 때문에 조선옷차림(Korean clothes)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쪽진머리, 쌍태머리, 외태머리, 그네머리, 귀밑머리등 민족적 전통스타일을 소개했다. 37)

쌍태머리는 머리를 좌우 두 갈래로 땋아 내린 머리로 귀여움이 돋보이며 처녀는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잘 어울리고, 외태머리는 한 가닥으로 땋아 내린 머리모양을 말하며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차림에 잘 맞는다.

특히 처녀들이 외태머리를 하면 갓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아름답다. 그네머리는 두 갈래로 땋은 머리끝을 서로 엇바꾸어 귀부분에 고정시켜 목 뒷부분에 둥근형태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결혼식 날 신부에게 잘 어울린다. 이 모양은 정숙한 느낌을 준다.



<사진 14> 북한여성의 땋은 머리단장
출처 ; 연합뉴스, 2005년1월31일자

37) 연합뉴스, 2005년9월22일자



<사진 15> ‘창광원 미용’과 이 잡지에 소개된 인기 헤어스타일
출처 ; 연합뉴스, 2006년5월4일자



<사진 16 > 여성머리형태표
출처 ; 연합뉴스, 2006년5월4일자

이 외에 처녀들을 위한 헤어스타일로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모양의 구름머리, 스포츠 헤어스타일의 운동머리, 대학생머리, 굽게 웨이브 파마를 한 긴 머리의 옥류머리 등이 있다.³⁸⁾

38) 연합뉴스, 2005년9월22일자



<사진 17> 대학생머리 옆, 뒤모습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21일자



2006년도에는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이전의 무거운 머리장식에서 가볍고 건사하기 편리한 머리 형태를 선호하는데 처녀들은 자연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벼운 머리 형태에 관심이 많고 노년기의 부인들은 연한 파마와 조발을 이용한 편리한 머리형태를 추구한다.

<사진 18> 위쪽 사진은 중년여성의 머리모양,
아래쪽은 20~30대의 앞뒤머리모양
출처 ; 연합뉴스, 2005년3월16일자

생활에서의 편리함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심리적요구가 많이 반영된 추세인데 짧은 단발조발과 앞머리 칼을 세운 생머리 훑음 조발, 직선 내려 훑음조발등 8가지의 머리형태가 유행중이라고 소개했다.³⁹⁾



<사진 19> ‘창광원미용’과 이 잡지에 소개된

인기 헤어스타일

출처 ; 연합뉴스, 2006년5월4일자

2007년에는 끝머리파마가 유행하였는데 끝머리파마는 앞파마와 옆파마를 하지 않고 뒷머리의 머리칼 끝을 파마해 약간의 파장을 주는 머리 형태이다 . 이 머리형태가 유행하게 된 것은 반듯한 앞머리는 민족적 색채가 있어 보이고 파장을 준 뒷머리는 화려함과 함께 새로움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또 추가손질이 적고 관리하기 편리한 것도 유행에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파마를 하지 않은 직선머리가 인기를 끌었는데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머리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39) 연합뉴스, 2006년3월27일자

2008년도에는 북한중년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 스타일을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간편한 머리형태를 원해 파도머리와 함박꽃머리가 유행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훑음 조발머리나 단발머리, 생머리, 긴 조발머리가, 남성들은 상가머리, 반상가머리, 높은 머리가 유행하고 있다.⁴⁰⁾

1980년대 중반 경제난의 타개책으로 북한당국이 조총련등 해외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외화상점과 외화별이를 추진하면서 조금씩 외국문물과 외제상품에 대한 환상이 생겨나던 중에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촉매제가 돼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체 사회주의문화, 도덕대로만 살던 새 세대 사이에서는 외국패션 모방 붐이 일어 미국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청바지, 일본의 부패문화라고 하던 치마바지가 등장하고 90년대 중반에는 미니스커트와 몸에 착 달라붙는 종대바지, 일명 쫄바지까지 유행했다. ⁴¹⁾90년대 중후반 수백만의 아사자를 창출한 ‘고난의 행군’은 북한주민들의 이념과 생활신조를 밀뿌리째 뒤흔들고 삶의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다. 북한주민들은 체제와 이념,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과 돈을 중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됐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고난의 행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북한이 경제난 타개책으로 2002년 부분적인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게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와 개인주의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7.1조치로 기관, 개인의 무역이 확대되고 식량, 생필품 구입을 위해 중국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사회에 들이닥친 또 하나의 변화는 한류열풍이다.⁴²⁾ 해외에서 남한의 TV방송과 가요, 드라마, 영화를 CD등을 통해 접한 주민들은 선진화된 남한의 실상에 눈을 뜨고 이를 북한에 퍼뜨린 것이다.

북한에 확산되는 북한의 컴퓨터 붐에 힘입어 ‘겨울연가’, ‘울인’등 남한의 인기드라마가 방영된 지 6개월이면 암암리에 퍼지고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머리염색까지 패션과 말투를 모방하는 풍조가

40) 노컷뉴스, 2008년3월9일자

41) 조선일보, 2007년10월12일자

42) 연합뉴스, 2008년9월1일자

빠르게 유행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돌던 남한의 발전상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의 확산으로 ‘확인’되면서 남한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져 시장에서 흥정도 없이 고가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남한상품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팔기 힘들어 상표를 떼어낸 뒤 아랫동네, 아랫마을이라는 은어로 팔린다’거나 ‘남한상표 부착 여부에 따라 옷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표를 붙인 채 비싼 값에 팔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상표 부착 여부를 놓고는 엇갈리지만 남한상품의 유통확산과 인기를 말해주는 데에서는 일치한다.

이러한 한류열풍의 중심에는 일제 식민통치와 6.25전쟁 전, 후 사회주의 건설을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가 서 있다. 북한의 신세대는 공산주의 시절의 동구권과 개방이전의 중국만을 접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의 중국, 러시아와 서방만을 접한 데다 어릴 때부터 굶주렸던 탓으로 개혁, 개방의지와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드라마도 인기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도 유행하고 ⁴³⁾북한의 아나운서의 머리모양이나 의상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나운서들은 평양 ‘창광원’에서 최우선으로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특권도 있다.⁴⁴⁾

다음은 국내 보도된 자료로 살펴본 연대별 북한의 남, 여 유행 헤어스타일로 <표 3><표 4>과 같다.

43) 연합뉴스, 2005년6월22일자

44) 조선일보, 2008년4월16일자

<표 3> 시대별 유행 여성 헤어스타일

년도	머리이름
2001년	일자커트, 틀머리, 쪽진머리, 애교머리
2002년	조발머리, 옥수머리, 수국화머리
2005년	구름머리, 운동머리, 대학생머리, 옥류머리
2006년	짧은단발조발, 생머리홍음조발, 직선내려홍음조발, 부인중간머리5호, 부인중간머리7호
2007년	끝머리파마
2008년	단발머리, 파도머리, 함박꽃머리

<표 4> 시대별 유행 남성 헤어스타일

년도	머리이름
2001년	남성 7:3가르마, 스포츠형머리
2004년	패기머리, 청춘머리, 보통머리
2008년	남성상가머리, 반상가머리, 높은머리

‘조발머리’는 처녀는 물론 부인이나 노인에게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세트를 하지 않고 파마한 머리를 조발 또는 손 건조기(Hair dryer)로 완성한 머리 형태이다. 앞 머리칼은 7~8cm, 옆 머리칼은 6cm, 위 머리칼은 9cm, 뒤 머리칼은 6cm되게 비교적 짧게 잘라 간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조발머리는 나이에 따라 머리칼 길이와 파마의 강도를 달리하면 좋다.

‘수국화머리’는 강한파장으로 얼굴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뒷머리는 부드러운 물결모양으로 내려와 끝부분을 수국화 꽃 모양으로 단장한 머리이다. ‘대학생머리’는 처녀들의 미감에 맞게 단정하고 간편한 머리형식이다. 이 헤어스타일은 앞 머리칼 10cm, 옆 머리칼18cm로 잘라 약간 층을 내주고 뒷머리는 15cm되게 자른 후 머리칼이 안쪽으로 향하게 만든다.

‘옥류머리’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단장하는 긴 머리 형식으로 한복과 양장에 다 잘 어울리며 장점으로 파마와 세트를 하고 옆머리를 윗머리로 끌어 올려 묶어 준 후 장식 핀으로 단장하기 때문에 활동에 편리하고 머리단장방법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파도머리’는 중간정도길이의 머리칼에 물결이 파도가 친 것처럼 머리장식을 한 것을 말하고 앞 머리칼 8cm, 옆 머리칼 10cm, 위 머리칼 18cm, 뒤 머리칼 14cm 정도로 잘라 파마와 세트를 한 후 얼굴모습에 맞게 완성한 스타일을 말한다.

‘커트머리’는 일단 파마를 살짝 한 후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좋게 한 번 더 자른 형태로 손질이 비교적 간편하고 얼굴이 귀엽게 보여 젊은 여성 대부분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다.

‘들국화머리’는 앞머리를 국화꽃처럼 꾸미고 파마한 머리를 짧게 잘라 드라이어로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준다. 함박꽃머리는 중간정도의 길이의 머리를 층을 많이 내어 파마하고 매끈히 빗어 말머리 부분을 활짝 핀 함박꽃처럼 장식한 스타일이다.

‘청춘머리’는 중간정도길이의 머리를 층을 거의 내지 않고 살짝 파마하여 앞머리를 살짝 구부려 주는 스타일로 사회에 갓 진출한 예비숙녀들이 많이 한다.

‘처녀머리’는 앞과 옆머리는 짧게, 뒷머리를 약간 길게 하는 스타일이다. ‘양털머리’는 짧은 머리를 양털처럼 곱슬곱슬하게 한 스타일로 중년 여성들이 선호한다.



<사진 20> 부인 중간머리

출처 ; MBC 통일전망대, 2006년9월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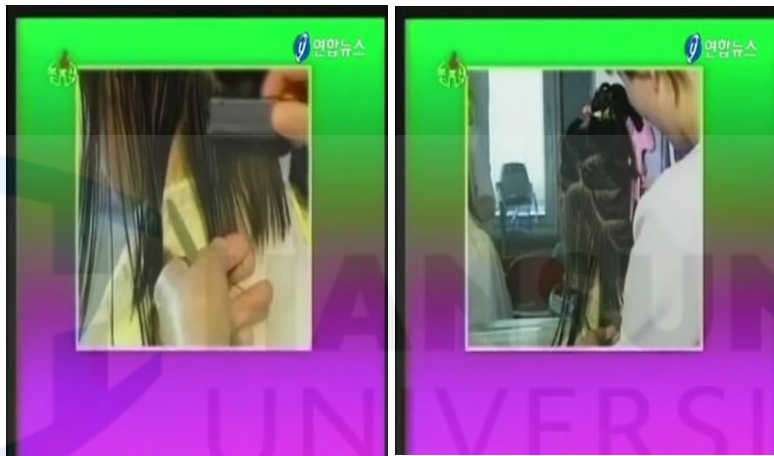
<사진 21> 중간머리에 앞머리를 내린 스타일

출처 ; 연합뉴스, 2008년7월21일자

<사진 22> 중간머리를 펴며

하여 온순해 보이는 스타일

가장 최근에 YTN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동영상을 보면 큰 변화 없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간 머리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고상하고 세련된 머리단장은 아름다운 인품을 돋보이고 가정과 사회에 문화적인 생활기품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간머리는 목선에서 10cm 내려오는 길이를 말하며 세련되고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시술 장면이 나오는데 레저로 커트하고 7섹션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3> 단발머리 시술 장면
출처; 연합뉴스, 2008년7월21일자

3) 북한의 유행패션스타일

북한에서는 옷의 대량생산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개성 있는 사람들은 옷을 고쳐 입거나 옷본을 직접 만들어 고쳐서 입기도 하고 장식을 달아 입기도 한다. 옷의 디자인은 북한에서 발간되는 달력을 보고 옷 공장에서 생산된다. 옷에 영문자 표기가 되어 있거나 청바지, 치마바지 등은 입을 수 없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밝은 색상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세련되어지고 소재도 다양해지는 패션 감각을 읽을 수 있다.

<표 5> 는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의 패션스타일의 변화이다 .⁴⁵⁾

<표 5> 북한의 패션스타일

연도	영화제목	패션스타일
1960년대	처녀이발사	치마저고리, 교복 같은 단정한 양장
1970년대	처남 오는 날	여성양장대중화
1980년대	꿈 많은 처녀	색상다양화, 소품이나 장식으로 개성표현, 목선이 드러난 옷
1990년대	도시처녀시집 가요	물방울무늬, 민소매유행, 화려한꽃장식, 반바지등장

최근 신세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패션을 추구하는데 패션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북한의 달라진 패션을 알 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무채색계열의 단순한 디자인의 작업복이나 전통적인 우리식 옷차림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89년 평양축전 이후로 외국패션을 모방한 옷차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08년 여성들의 조선옷의 특징은 실용정보다는 옷맵시에 중점을 두는 패션경향을 보이고 폭이 좁아 몸매선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선호되고, 치마의 길이가 10cm 짧아진 스타일과 천 무늬, 재질, 색깔 등을 다양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을 강조하고, 남성양복은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늘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형태로 종아리 폭이 넓은 나팔 모양의 바지와 3알 단추(Three button)의 제깎 깃 양복과 단깎 깃 (China collar)양복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46)

최근 평양에서는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다

45) MBC통일 전망대, 2006년2월21일

46) 조선일보, 2008년3월6일자

양한 색상의 헤어핀과 화려한 디자인의 목걸이, 귀를 뚫어 길게 늘어뜨린 형태의 귀걸이를 하고 남자들은 색이 들어간 안경과 멋을 내는 선글라스 착용하고 있다.

3. 북한 간행물

북한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용은 서비스직이나 전문직 내지는 예술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경공업’분야 중에서 ‘일용부문’에 속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경공업 학술지에 수록된 내용들은 화장품과 염색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파마 약에 관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당국이 발간하는 ‘조선녀성’은 북한정권 수립초기부터 발행되어 오늘에 이르는 북한의 유일 여성전문잡지로 1946년 9월6일에 창간되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계급교양을 위한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생활상식, 유머, 속담 등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유일한 종합교양잡지인 ‘천리마’는 1959년 1월에 창간되어 다른 대중잡지들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사상교양, 계급교양 등의 내용을 차지하고 민간요법, 가정생활상식, 국제상식, 세계유명인물 등을 비롯해 북한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북한당국의 사회 문화정책의 의도와 북한주민들의 의식, 문화수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머리스타일은 민족적 정서가 있고 사회주의적 양식에 맞는 머리스타일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주로 여성의 혁명적 사상을 담은 이야기가 게재되어있고 옷차림이나 머리단장, 화장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1) 『조선녀성』, 『천리마』를 통해본 유행 헤어스타일과 미용 상식

북한에서는 ‘외모는 사람의 문화수준과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고 시대적미감에 맞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에 어울리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건전하고 고상하게 민족적정서가 있게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생기 있고 복스럽게, 청년들은 담차고 기백 있게, 처녀들은 날아갈 듯이 우아하게, 부인들은 정갈하고 현숙하게, 늙은이들은 무게 있고 로숙하게, 당의 의도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⁴⁷⁾

1989년 평양축전 전후로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옷차림이나 머리스타일의 다양한 스타일을 권장하고 유도하였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스타일을 규제하고, 삼국시기 이전 발해 및 신라, 고려, 이조시기까지 계승한 여성들의 땅은 머리카락, 엮은머리, 쪽진 머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재는 이런 스타일을 기본으로 단발선 에서의 길이스타일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새터민8의 증언을 보면 그때 당시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조선녀성’, ‘천리마’등에서 민족적 고유한 정서에 맞는 머리스타일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한에서의 TV나 대중매체로 유행스타일을 쫓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새터민8의 증언이다.

‘김정일은 인민의 취향이 어떻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의 감정의 기복에 따르는 지시문을 아래 당 조직들에 수도 없이 내려 보내 청년과 인민들을 괴롭히는데 한때엔 처녀들의 머리를 민족적 전통을 살린다면서 옛날식으로 길게 땅아 늘이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공장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습시다.’

북한은 선군 시대 선군조국에 맞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혁명의 나라, 투쟁하는 나라 사람들답게, 민족적 정서가 깃들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전투적이면서 고상하고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머리단장을

47) 문학예술출판사(1997), 『조선녀성』 5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40

가르친다. 머리단장에 멋을 부리면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지 않으며 사람의 인품을 떨어뜨리고, 외모는 사람의 문화수준과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짧고 위생적이며 민족적정서가 깃든 머리스타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⁴⁸⁾

얼굴 화장은 연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얼굴의 잔주름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화장법을 보면 분 크림을 두텁게 바르면 얼굴표정이 달라질 때마다 금이 가기 때문에 얇게 바르고 눈과 입술을 밝은 색으로 강조해주면 잔주름이 나타나지 않는다⁴⁹⁾고 설명하고 있고 자외선이 얼굴피부를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윤기가 나게 하고 탄성이 있게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면 비타민D합성에 지장을 주므로 얼굴화장은 소박하고 자연미가 나게 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⁰⁾

남성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스타일인 고슴도치머리라고도 불리우는 패기머리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이는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인체의 뇌 조직에 공급되는 영양물질이 부족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위생 상태에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¹⁾ 1997년에 소개된 머리스타일은 애 어린 처녀나 30대미만의 여성들은 둥근 단발머리를 하는 것이 좋고 젊은 부인이나 중년 부인들은 틀 머리가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용 상식으로는 닳새에 한 번씩 머리감는 것이 좋고 물비누로 감고 나서 싹싹은 물이나 생콩물, 식초 물로 헹구면 부드러운 머리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2002년에는 여름철 남자 머리단장으로 패기머리, 해살머리, 동색머리 등이 있고 머리가장자리 머리발들이 가장자리 선을 지나지 않게 하여야 시원하면서 보기에 좋다고 소개했다. 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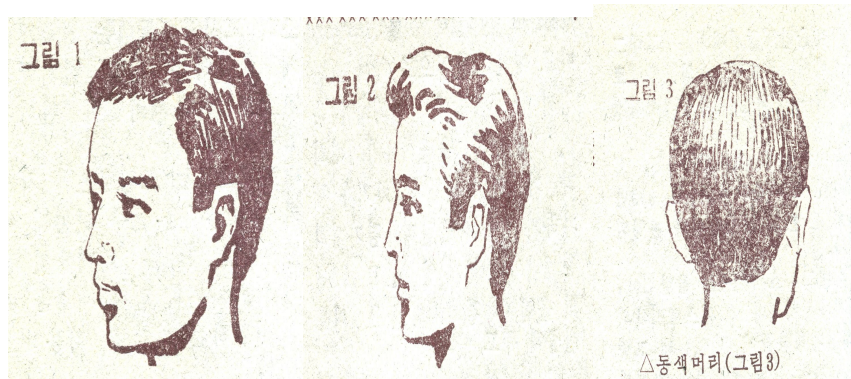
48) 문학예술출판사(2006), 「조선녀성」 9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47

49) 문학예술출판사(2004), 「조선녀성」 1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41

50) 문학예술출판사(2008), 「조선녀성」 8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22

51) 문학예술출판사(2004), 「조선녀성」 1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41

52) 천리마사(2002), 「천리마」 8월, 출처 ; 천리마사, p.88



<그림 1> 패기머리 <그림 2> 해살머리 <그림 3> 동색머리
출처 ; 천리마, 2002년8월, p.88

2003년에는 처녀는 외태머리나 쌍태머리, 기혼녀는 낮은 남자머리나 뽀야머리를 하는 것이 고유의 머리형식이라고 권장하고, 옥류머리, 파도머리, 대학생머리, 조발머리 등이 있다.⁵³⁾

‘머리단장 역사’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1930년부터 단발머리가 나타났는데 간편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보급되고 1940년에 파마가 보급되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전기 및 증기파마가 보급되었으며 1960년대 중엽부터 화학과마가 보급되었다고 소개한다.

또, ‘여성들의 결혼식 머리 단장’에서는 결혼하는 여성의 틀머리 단장은 밑머리칼 20cm정도 길이로 중간정도 층을 내고 파마를 하여 틀어 올리며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 우아하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칠보단장으로 쪽진머리를 할 때는 큰비녀를 꽂고 앞땀기와 뒤텔기를 드리운다. ‘머리단장 치레거리’로 비녀는 주되는 재료에 따라 금비녀, 은비녀, 백동비녀, 놋비녀, 나무비녀, 뼈비녀, 참대비녀 등으로 나뉘어지며 비녀의 머리장식에 따라 봉잠, 용잠, 매죽잠 등이 있다. 또한 큰비녀와 작은 비녀로 나누기도 하고 뿔잠이라는 비녀도 있었는데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중심 혹은 양쪽에 하나씩 꽂는 치레거리이다. 뒤텔이는 작은 비녀와 모양이 비슷한 것인데 뒤텔머리에 뿔잠은 치레거리이다. 머리칼을 고정시키는 것이 그 사명이 아니고 순수 머리치레용이다. 뒤텔이는 대

53) 천리마사(2003), 「천리마」 3월, 출처 ; 천리마사, p.88

체로 여러 가지 동식물을 형상화하여 화려하게 꾸몄는데 주로 왕족들과 부유계층에서 이용하였다. 땡기는 어린이땡기로 도투락땡기, 장폭땡기, 긴 땡기, 제비부리땡기 등이 있고 다 자란 처녀들은 앞 땡기와 뒤 땡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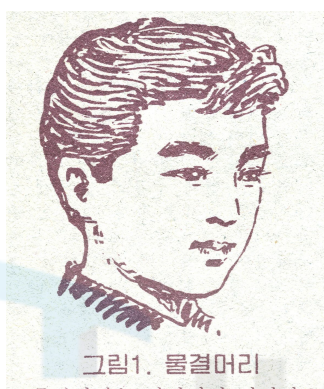


<사진 24> 여성머리장식

출처 ; 금수강산, 2003년10월, p.49

2004년에는 양장에 어울리는 짧은 머리카락이나 장식머리를 소개하고 겨울철 남자머리단장으로는 ‘물결머리’는 전반적인 머리칼흐름을 물결처럼 단장한 머리 형식으로 간단히 파마를 하여 완성하면 형태잡기도 쉽고

손질도 간편하다. ‘갈매기머리’는 앞머리의 장식적 효과로 얼굴이 길고 이마가 넓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혁신머리’는 앞 머리칼이 45° 각도로 빗어 올려 전반적인 머리칼흐름을 뒤 방향으로 빗어 올려 손 건조기와 솔빔을 리용하면 형태잡기가 쉽고 손질도 간편하다. 또 탈모예방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생강즙을 물에 희석하여 바르거나 검은 참깨가루를 알콜에 섞어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54)



<그림5> 물결머리



<그림6> 갈매기머리



<그림7> 혁신머리

출처 ; 천리마, 2004년1월, p.84

2005년 머리비듬을 위한 민간요법으로는 박새뿌리가루로 머리를 감거나 발라주고 뽕나무가지를 말려 불에 태운재로 재물을 받아 머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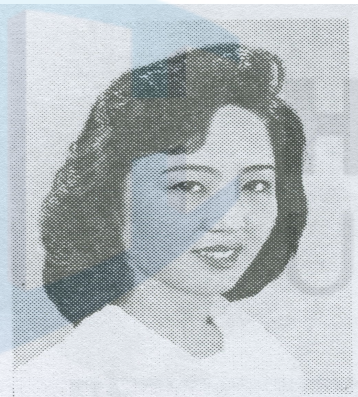
54)문학예술출판사(2004), 「조선녀성」 1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41

감으면 비듬이 없어진다고 소개했다.

2008년에는 겨울철 옷차림에 맞게 짧은 조발머리와 파마머리를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을 하고 겨울철 센바람에는 머리단장을 형클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식초를 약간 바르고 말리우고 머릿기름이나 머리고착제를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머리제품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또한 ‘미를 한껏 돋구어 주는 여러 가지 머리 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파도식 흐름을 낸 건발머리’는 무겁게 층을 낸 뒤머리와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자르고 굽은 회전술에 감아 건발하고 완성한다.

‘무거운 층조발 세트머리’는 기준머리칼과 밑머리칼은 각도를 낮추어 자르고 뒷머리와 웃머리는 점차 각도를 높여 앞머리와 연결되게 조발한 다음 형잡기를 하여 완성한다.



<사진 25> 파도식 흐름을 낸 건발머리 <사진 26> 무거운 층조발세트머리
출처 ; 조선여성, 2008년10월, p.32

‘작은 얼굴에 맞는 짧은 조발머리’는 기준머리칼 길이를 6~7cm정도로 하고 조발각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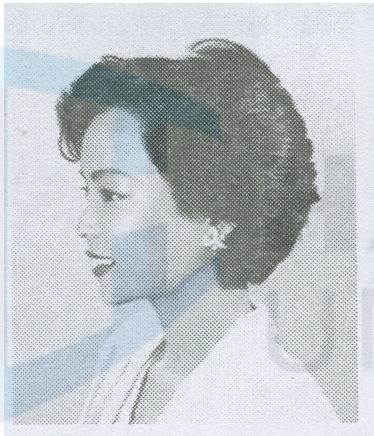
‘웃머리에 생기를 낸 세트머리’는 귀밑에서부터 머리칼 끝까지 부분 파마를 한 다음 전반적인 머리를 세트말기로 형잡기를 하고 완성한다.

‘높은 층조발과 건발머리’는 먼저 초벌조발을 하고 파마를 한 다음

긴 밑머리를 옷머리와 련결하여 층을 높이 낸다. 키가 크고 얼굴이 둥근 여성들에게 잘 어울린다.

‘흐름식과장으로 정돈한 머리형’은 초벌조발과 파마를 한 다음 기준머리칼을 길게 조발하고 건발로 자연스러운 물결과장을 내면서 완성한다.

‘중간층조발세트머리’는 뒷머리에 층을 중간정도 내고 파마세트를 하여 자연스럽게 빗는다. 30~40대 여성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⁵⁵⁾



<사진 27> 짧은 조발머리



<사진 28> 옷머리에 생기를 낸 세트머리

55) 문학예술출판사(2008), 「조선여성」 10월,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p.32



<사진 29> 높은 층조발과 건발머리



<사진 30> 흐름식 파장의 머리형



<사진 31> 중간층 조발세트머리

출처 ; 조선여성, 2008년10월, p.32

최근 북한여성들 사이에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결을 곱게 하는 민간요법 몇 가지’로 야채나 과일, 꿀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천연 미용 팩을 만드는 방법과 효능 등을 소개했다.

①토마토 즙에 글리세린을 적당히 섞은 것을 하루에 2~3회 얼굴에 바

른 후 10분정도 지나 씻어내면 살결이 고와지고 주근깨도 없앨 수 있다.

②끓인 물 한 컵에 민들레꽃 한줌을 넣고 우려낸 물을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바르면 피부염도 예방할 수 있고 주근깨도 없어지며, 토종꿀과 밀가루, 검정콩가루를 일정한 양으로 잘 섞은 것을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증기를 쏘여줘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가 말끔해지고 보동보동⁵⁶⁾ 해진다.

③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색소가 침착되고 주근깨가 있는 사람은 당근 즙에 식물성기름 몇 방울을 섞어 바르면 효과가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쌀 씻은 물로 세수를 하면 얼굴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난다.

이를 보면 89년 평양축전이후로 서구적 문물과 자본주의바람이 불면서 많은 미적 변화가 있었는데 2004년 TV시리즈와 함께 조선녀성에서도 자본주의 사상을 우려하여 국가주도하에 옷차림이나 머리스타일, 화장 등을 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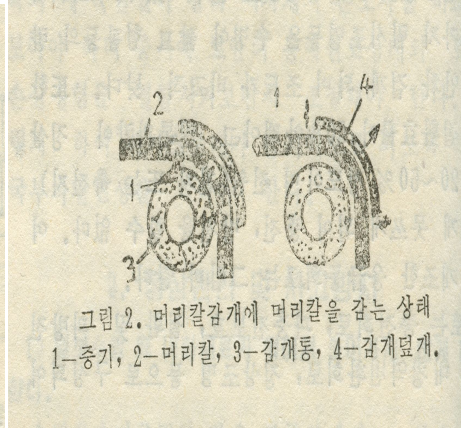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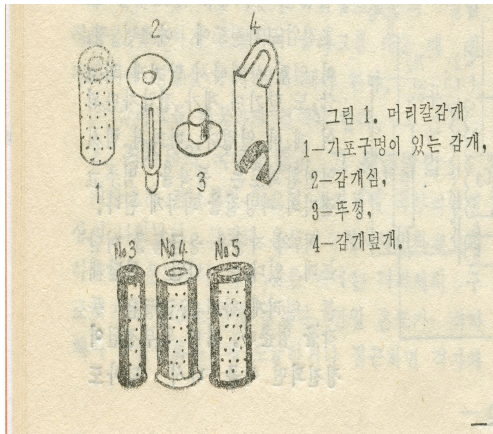
2) 경공업을 통해본 북한의 미용 산업

(1) 새 형의 증기파마기(경공업 ; 1998년2월, p.24)

전통적인 파마방식에는 화학파마와 전열파마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파마는 다 같이 결함이 있다. 즉 파마과정에 머리칼을 손상시킨다. 머리칼세포는 주요하게 단백질과 물기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파마 때에는 쓰는 약물에 의해 머리칼이 손상되고 전열파마 때에는 머리칼 속에 있는 물기가 대량적으로 빠져 머리칼이 굳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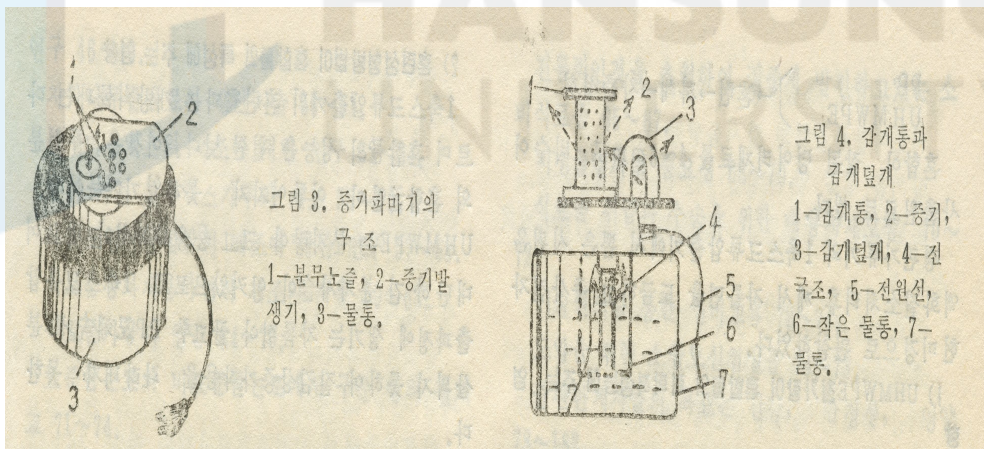
증기파마는 새로운 파마방식으로서 머리칼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마속도가 빠르며 원가가 낮다.

56) '보동보동'이란 통통하게 살이 찌고 보드라운 모양을 말한다.



<그림7> 머리칼감개 와 머리칼을 감는 상태

출처 ; 경공업(평양)



<그림8> 증기파마기의 구조

출처 ; 경공업(평양)

<그림9> 감개통과 감개덮개

출처 ; 경공업(평양)

(2) 육모제(경공업 ; 2001년3월, p.32)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수는 보통 약 10만개정도라고 하지만 개별적 사람과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머리카락은 한 달 동안에 평균 1cm정도 자란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작용 메카니즘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성인 경우 약제의 작용 메카니즘에는 모낭에 대한 영양보충공급, 머리피부와 모낭에서의 피 흐름촉진, 레스토스테론(피부속의 남성호르몬)에 대한 길항 및 억제작용 등이 있다.

육모제의 유효성분은 <표 6>과 같다.

<표 6> 육모제의유효성분

작용		유효성분
혈관확장	피 흐름 촉진제 국소자극제	초산토코페롤, 염화칼프로니움, 미노키시딜고추우림액, 생강우림액, 니코틴산벤질
영양보충공 급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판토텐산유도체, 비오틴, 염화피리독신시스틴, 시스테인, 셀린, 메티오닌
호르몬제		에스트라디올,에티닐에스트라디올,염산디펜토라민, 글리실리친,염화벤잘코니움,염화벤제토니움,히노키 티올,펜타테칸글리세리드,알란토인,프라셀타엑스
항 염증제		
살균제		
에너지 대사 개선제		
세포 활성화제		

표의 성분 가운데서 살균제는 머리피부의 균을 죽이기 위하여 쓴다. 머리 피부에서 분비된 피부기름이 머리피부의 균에 의하여 자극성기름 산 등으로 분해되는데 이 자극이 원인이 되어 비듬, 가려움이 생기며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균제를 넣는다.

항염증제는 머리피부에 생긴 염증을 없애는데 쓴다. 미노키시딜은 혈

압하강제로서 개발되었으나 림상실험결과 모낭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증식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육모제에 배합되는 성분으로는 또한 청량화제, 보습제, 경피흡수촉진제, 피부기름제거제, 가용화제, ph조절제, 향료 등을 들 수 있다.

(3) 로화방지화장품에서 은행나무잎우림물의 리용(경공업 ; 2003년3월, p.35)

의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화장품생산에서는 천연자원을 리용하는데 큰 주의가 돌려 지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피부로화 인자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보호용 화장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로화방지용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년간 세계적으로 약품, 화장품 및 보건제품생산에서 은행나무잎 우림물을 널리 리용하고 있다.

피부의 로화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라디칼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인체 내에서 라디칼은 기름산과 반응하여 말론디알데히드를 생성하고 이것이 세포막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밤색색소가 생겨 피부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반점이 생긴다. 플라본이 들어 있는 은행나무잎 우림물은 매우 센 산소라디칼 제거약제로서 산소라디칼에 의한 산화를 막아 피부세포를 보호하여 피부세포의 수명을 늘리고 로화방지능력을 높여 준다.

또한 은행나무잎 우림물에 있는 락톤도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세포의 활력을 높여 준다. 은행나무잎 우림물은 누런 색 포도알균을 비롯한 병균들에 대한 살균작용을 한다.

(4) 화장품 공업의 발전 동향(경공업 ; 2004년2월, p.1)

세계적으로 화장품 및 세척용품 총 판매액은 약 1,500억US\$로서 년

간 증가율이 약 4 %이다. 유럽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 상품은 머리칼용 화장품이고 다음 피부보호 화장품이다.

최근에는 채색화장품이 많이 나오며 그 색상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피부보호 화장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는 해비침률이 길므로 미백화장품이 많이 사용되고 서유럽은 목욕비누, 냄새 제거제, 땀 방지제, 프랑스는 향수를 기본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화장품과 세척용품구조를 보면 피부보호 화장품 47%, 머리칼용 화장품23.8% ,구강 위생용품9.2%, 향수1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일본의 피부보호 화장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화장품 제조기술은 현재 전자정보기술, 생물기수, 선진제조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기본 제품으로는 로화방지 제품, 미백 화장품, 해빛막이 화장품, 머리칼염색 화장품, 운동용 화장품이 있다. 화장품분야에서 기본흐름은 생물제제와 천연식물 추출물이 많이 쓰이고 있고 생물제제는 피부대사에 참가하여 피부조직구조를 변화시키므로 주름막이, 로화방지, 미백, 검은반점 제거와 같은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현대 기능성 화장품의 기본원료로 되고 있고 이런 생물제제는 세균세포려과액, 효소와 효소복합물 ,세라미드 등이 있다.

천연식물 추출물은 치료효과, 영양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화하게 작용하고 약 효력이 오래가며 피부에 대한 자극성이 적고 안전성이 높으며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다.

제품으로는 록색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록색 화장품은 천연원료를 많이 리용하고 될수록 피부를 자극하는 색소, 향료, 방부제를 적게 써서 화학성분이 인체에 주는 여러 가지 해독성을 줄여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인체에 절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기능과 작용에 따라 반점제거 증백류, 여드름 제거류, 머리칼 보양류, 머리칼 염색류 외에도 해빛막이, 피부유탕, 땀 방지제 등 여러 가지 기능성, 특수화장품들이 새로운 발전분야로 제기되고 있다.

5) 머리칼용화장품에 리용되는 식물성단백질(경공업 ; 2005년2월, p.32)

현재 화장품에서 리용하는 식물성단백질과 복합물은 수십 종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콩물분해단백질, 밀물분해단백질, 완두콩물분해단백질, 살구씨 속살물분해단백질 등이다.

머리카락용화장품에서 리용되는 식물성단백질이 산 또는 효소의 작용으로 물분해 될 때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물분해 되기 전의 단백질 성분을 가진 중간생성물(상대분자량1,000~30,000)이다. 머리칼용화장품에서는 보통 분자량이 400~700정도의 것을 쓴다. 물분해단백질유도체는 보통 화학적 변성을 통하여 단백질의 결사슬이나 말단에 다른 원자단을 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식물성물분해단백질로는 수용성 고분자 단백질과 저분자 아미노산이 있고 식물성물분해단백질유도체로는 4급 암모니움화단백질유도체와 단백질알킬유도체가 있다. 머리칼용화장품에서 리용하는 식물성단백질은 식물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자극성, 독성이 낮고 부착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 영양, 천연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응용 전망이 있다.

(6) 최근 머리물감의 발전 동향(경공업 ; 2005년3월, p.10)

림시머리물감은 색소 또는색소중간체가 털 각피의 겉면 혹은 털 각피의 겉면층과 F층의 세포막복합체층 사이에 머물러 있는 머리물감을 말하며 머리물비누로 씻으면 완전히 제거되며 분무형, 연고상태의 제품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반영구머리물감은 색소 또는 색소중간체가 털 각피에 침투된 다음 털겉질의 거친원섬유 혹은 미세원섬유로 들어가는 머리물감을 말하며 반영구 머리물감을 만들 때 침투촉진제로는 보통 N-메틸피롤리돈과 탄산알킬렌 등이 쓰이는데 무로가알콜, 유기용매를 혼합하여 침투성이 좋은 침투촉진제를 얻고 있다.

영구머리물감은 색소 또는 색소중간체가 알칼리성물질과 과산화물을

리용하여 털 각피의 F층(털겉질)에 있는 21개의 탄소수를 가진 지방산 티오에스테르사슬을 끊어 털겉질 중의 거친 섬유와 미세섬유에 직접 들어가 산화중합되어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머리물감을 말하며 피부에 대한 자극성과 머리칼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제품 속에 머리칼 보호용 성분들을 넣고 있는데 이 성분들로는 단백질분해물질, 양이온단백펩티드, 고분자양이온중합물, 디메틸폴리실록산유도체와 식물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알칼리성물질로 알칼리성아미노산, 알킬프로필아민과 그 유

도체들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을 넣어 머리물감을 만들어 안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처럼 희게 된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 이후 컬러TV의 영향으로 컬러시장이 발달하면서 헤어와 화장, 의복에도 컬러 바람이 불기 시작 하였다.



<사진 32> 1회분 머리물감
출처 ; 뉴시스통신.2008.10.30

1990년대에는 염색컬러도 다양해지고 대중화되어지면서 헤어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아직 흰머리를 염색하는 이 외에 멋내기 컬러는 하고 있지 않다.

(7) **록색화학과 화장품**(경공업 ; 2005년6월, p.37)

화장품은 인체 겉면의 임의의 부위(피부, 머리칼, 손톱, 입술 등)에 바르거나 분무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며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용화학 공업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화장품사용으로 하여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정성, 기능성, 천연성, 환경 보호성의 록색화장품 생산이 미래의 발전 방향이다.

록색천연원료를 개발 리용하는것이 화장품제조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천연원료를 리용하여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색소, 향료, 썩음막이제를 될수록 쓰지 말아야 한다. 단삼, 잇꽃, 함박꽃과 같은 식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생물기술을 리용하여 태반추출물, 왕벌꿀, 콜라겐 단백질, 혈청, DNA, 바다마름여리당 같은 유효물질들은 추출제조하여 리용한다. 고착제분무, 향수분무에 쓰는 공기줄 분사제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화수소를 리용한다. 액화석유가스와 디메틸 에테르로 염화불화탄화수소를 리용하면 오존층파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8) **해빛막이 화장품**(경공업 ; 2006년3월, p.29)

피부가 로화되고 거뭇게 되는 것은 주로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비교적 긴 자외선 UVA의 작용을 계속 받는 결과이다. UVA는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도 된다. 피부에 손상을 주고 급성 홍반을 일으키는 것은 파장이 짧은 자외선 UVB인데 에네르기가 크고 피부에 대한 침투력은 UVA에 비하여 약하지만 피부의 각질층을 걸쳐 겉껍질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UVA는 피하조직에 침투되어 콜라겐섬유를 끊어 주름이 생기게 하고 인체의 DNA산생에 영향을 주어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병을 일으키게 한다. 해빛의 자외선 총량 중에서 UVA는 98%를 차지하며 UVB세기의 거의 100배에 이른다. UVB는 피부에 급성홍반과 해

빛에 의한 손상을 주는데 밖에서 활동할 때 보호대책을 하면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햇빛막이 화장품에 UVB와 UVA 흡수제를 널리 리용하고 있다.

햇빛막이제는 그것의 화학구조에 따라 유기자외선 흡수제와 무기자외선 흡수제로 나뉜다. 유기자외선 흡수제의 메톡시페닐산이소옥틸에스테르(OMC)는 현재 햇빛막이 화장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UVB흡수제이다.

그 첨가량은 3~7.5%인데 UVA흡수제(3급-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와 함께 쓰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 4-메틸벤잘장뇌(MBC)는 비교적 빛에 안정하고 자외선 UVB에 대한 흡수율이 높으며 OMC와 디페닐메틸케톤-3과 같은 UVB흡수제계를 안정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첨가량은 0.5~4%이며 UVA흡수제와 함께 쓰면 그 효과가 높아진다. 햇빛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자외선흡수제는 트리아진류와 페닐트리아졸류흡수제이다. 3급-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은 효과가 높은 UVA흡수제로서 화장품에 대한 첨가량은 보통 1~3%이며 UVB흡수제인 OMC, MBC와 함께 리용하면 효과가 높다.

(9)머리칼 고착수지(경공업 ; 2006년4월, p.18)

머리칼 고착 및 바로잡기를 위한 분무제, 고착수 등과 같은 머리칼용 화장품들의 조성에서 고착작용과 관련한 기본성분은 고착수지이며 일명 막형성중합물이라고 부른다. 고착수지가 형성한 막의 질과 흡수력, 수용성, 광택 등 성질들은 머리칼고착제, 최종제품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전에 리용된 고착수지로는 천연라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물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점차 합성고분자 중합물로 교체되었다. 폴리비닐피롤리돈(PVP)을 막형성중합물로 쓰기 시작하였고 PVP, 초산비닐에스테르, 아크릴산(에스테르)류 등을 단량체 합성한 여러 가지 고분자중합물과 2원 혹은 다원공중합물들이 리용된다.

이는 머리칼에 대한 친화성과 접착성이 좋을 뿐 아니라 투명하고 부드러우며 튼성이 있는 막을 형성한다. 사용 후 물이나 비누, 물비누로

쉽게 씻을 수 있고 고착제를 사용한 후 비교적 오랫동안 고착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습기 전달성도 있다.

(10) 식물성머리물감의 연구발전(경공업 ; 2006년6월, p.28)

사람들이 식물을 머리염색에 리용한 역사는 기원전1000여 년 전부터이다. 천연식물머리물감의 기본성분은 폴리페놀류 식물성 물감활성성분들로 되어있다. 례하면 헤마톡실린, 탄닌산이 많이 포함된 식물들을 들 수 있다. 색소 흡착형은 식물성물감과 양이온계면활성제가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미소립자 상태로 머리칼겉면에 붙는다. 식물성활성성분과 금속염과의 착화합물 형은 식물중의 활성성분과 금속염이 색을 띠는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머리칼에 침투된다. 식물성머리물감은 자극이 없고 독성이 적으며 자연미가 나지만 원료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착색효과가 나쁘며 가격이 비싸다.

(11) 바다식물과 푸른색화장품(경공업 ; 2007년2월, p.2)

최근 바다풀속의 기능성 물질이 피부보호 및 영양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으로 만든 푸른색화장품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바다풀조직과 피부조직을 비교한데 의하면 비슷한 점이 많다. 바다풀조직과 인체피부조직은 다 같이 주위환경으로부터 영양성분을 섭취하며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화학적 활성조절과 협동작용이 거의 같다.

또한 모두 비슷한 환경조건 즉 산화, 열, 빛 작용, 건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다풀을 피부용화장품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매개 바다풀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식물성제품을 많이 얻어내자면 제품의 가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다식물 추출제품들의 기능을 보면 보습작용, 주름방지작용, 햇빛방지 및 노화방지작용, 기름분비 조절작용, 광물질보충작용, 향과민작용, 몸까기작용 등이 있다.

(12) 최근 머리 물비누 및 린스의 기술발전 동향(경공업 ; 2007년6월, p.17)

머리 물비누와 린스는 피부에 대한 자극성을 낮추고 비듬을 제거하는 기능 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머리 보호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기능들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의 개발과 기능의 복합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표 7> 일반머리물비누의 기본조성

성분	배합목적	대표적인 실례
양이온계면활성제	유연성, 평활성, 대전방지성 부여	염화알킬트리메틸암모늄, 지방산아미드아민염 등
유제		고급알콜, 지방산, 실리콘유도체, 에스테르유,탄화수소등
점도증가제	점도조절	섬유소유도체등
다가알콜	용해성 제고, 점도조절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벤질알콜 등
기타	방부제, 비듬방지제, ph조절제, 향료 등	머리 물비누와 같음

<표 8> 린스의 기본조성

성분	배합목적	대표적인 실례
기본계면활성제	세척제, 기포제	알킬에테르류산염, 알킬류산염
보조계면활성제	거품성능, 윤희성, 점도 등의 조절	아미드프로필베타인, 알카놀아미드, 글리세릴에테르

조리제	머리세척 및 행굴 때의 감촉 향상	양이온화 섬유소, 양이온화 구아검
유제	건조후 감촉향상	실리콘유도체, 고급 알콜
진주광택제	겉보기조절	탄화수소
킬레이트제	음이온활성제의 칼슘염 형성제	지방산글리콜에스테르
비듬방지제	비듬, 가려움방지	피리티온아연
ph 조절제	ph조절	레몬산, 젖산
방부제	미생물오염방지	안식향산염
향료	향 부여	

(13) 남성화장품의 개발동향(경공업 ; 2008년5월, p.1)

최근 세계적으로 남자들 속에서 미적관념이 점차 높아지면서 남성화장품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세계화장품 및 세척제시장액은 2540억 US\$였으며 남성화장품 시장액은 202억US\$를 차지하였다.

비록 남성화장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비교적 작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2001~2005년 사이에 남성화장품은 매해 7%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남성화장품은 단일한 세척기능으로부터 점차 활동, 취미, 감성화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많은 남자들이 이미 목욕 시 냄새제거제, 몸물비누류만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더 높고 심도 있는 화장품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화장품은 화장품 시장액의 8%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에 품종과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서 남성화장품의 시장수요는 해마다 9.6%의 속도로 높아질 것 이라고 한다.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이 <미채취금광>으로 중시되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남성 전용 화장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남성화장품은 주로 향수, 면도후화장수, 면도크림, 얼굴세척유, 얼굴크림, 살결물 등 몇 개 종류에 국한되어 있다. 남자들의 미용에서 가장 관심사로 되고 있는 문제는 얼굴부위의 보호와 피부의 치료이다.

남성화장품은 크게 면도전화장품, 면도후화장품, 얼굴세척용 화장품, 목욕용 제품, 냄새 제거제, 머리칼보호 화장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가를 수 있다. 남성화장품에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피부보호 화장품이다. 남자들의 피부는 여자들과 다르다. 여자들의 피부에서는 기름 분비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얼굴에 털 구멍이 크고 기름분비가 많으며 피지선분비가 나이와 무관계하다.

또한 남자의 피부는 항상 면도로 하여 각질층이 손상되기 쉽고 세균 번식으로 여러 가지 피부이상이 생기므로 면도후의 피부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알맞은 피부보호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보기 좋게 하여야 한다. 어느 한 회사에서는 남성 얼굴세척유, 미립자형 얼굴세척유, 남성 심층보습크림을 만들어 팔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남성피부보호 화장품을 또 내놓았다.

2005년에 한 회사는 거품이 잘 일고 천연보습인자가 들어있으며 시원한 느낌을 주는 얼굴세척크림, 식물열매추출물과 천연보습인자가 들어있는 피부보호 보습유액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활성탄소 얼굴세척유, 기름조절 얼굴세척제, 피부활성 얼굴세척유 등 기초 피부보호제품도 나오고 있다. 이 화장품들의 기능은 주로 기름조절, 곰보자리제거가 기본이다. 과민방지, 보습기능을 가진 화장품, 조효소Q10함유화장품, 눈크림, 미안막, 살결물, 유액 등도 개발되고 있다.

4. 새터민의 북한 미용에 대한 구술

해마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8년 현재 탈북자수는 13,993명이고 이 중 여성비율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해 남한사회가 갖는 이런저런 편견 때문에 생기는 거부감으로 2005년 10월 1일부로 ‘탈북자’라는 용어대신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통일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⁵⁷⁾

‘새터민’의 새로운 명칭은 탈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어연구원 전문가, 언론인, 새터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총 17,000여명의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되어진 용어이다.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터민들의 쉼터’ ‘탈북자 동지회’라는 인터넷동호회에서도 ‘새터민’이라는 용어의 변경을 주제로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불리어지는 용어가 아닌 남한사회의 진심어린 이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 및 직업훈련 정보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에 앞서 정착한 새터민들이 많이 취업한 직업의 종류, 자격증 정보 등을 고려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새터민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을 보면 2005년 이후 하나원에 입교한 1,425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요리사가 188명(1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미용97명(7.6%), 사무직80명(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⁵⁸⁾

57) 통일부(www.unikorea.go.kr)

58) 연합뉴스, 2007년11월22일자

<표 9> 새터민의 희망직업

희망직업	인원	%	희망직업	인원	%
요리사	188	14.25	컴퓨터	26	1.97
이미용	97	7.35	교사(유치원)	25	1.90
사무원	80	6.07	의류(패션디자이너)	21	1.59
자동차 운전원	67	5.08	기계	20	1.52
회사원	66	5.00	연예인(가수, 성악)	20	1.52
간호사	59	4.47	무역 회사원	19	1.44
봉제원	51	3.87	전기	17	1.29
단순노무	42	3.18	피부미용사	17	1.29
자동차정비원	42	3.18	청소원	14	1.06
용접원	39	2.96	마사지사(발)	13	0.99
중장비 운전원	39	2.96	건설	12	0.91
전자제품조립	38	2.88	교사	12	0.91
판매원	33	2.50	관광안내	11	0.83
통역원	32	2.43	디자인 관련직	11	0.83
간병인	31	2.35	실내인테리어	11	0.83
식당종업원	31	2.35	제조생산직	10	0.76

출처 : 김임태, 새 천년 복음통일을 준비하라(v),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통일

선교대학, p31-33

(<http://club.cyworld.com/5267478012/4044759>, 재인용)

이들은 남한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은 채 바로 하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의 직업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서의 미용사에 대한 인식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사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로 남한에서는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사회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새터민의 인터뷰 조사는 2008년 10월1일부터11월20일까지 새터민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새터민 미용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새터민들은 탈북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힘들게 남한에 정착해서 남한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에서의 증언이나 인터뷰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인터뷰나 면접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고향과 성별, 연령대로 표시하였다.

<표 10> 새터민 구술자의 인적사항

이름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거주지
새터민1	여	20대	함북 청진
새터민2	남	20대	함북 온성
새터민3	여	30대	함북 회령
새터민4	남	30대	평양
새터민5	여	20대	함북 무산
새터민6	여	30대	함북 청진
새터민7	남	20대	함북 무산
새터민8	남	30대	평양
새터민9	남	30대	함북 청진
새터민10	여	30대	평양

① 새터민1 , 함북청진, 여, 20대

“각 리마다 국가 지정 리발소, 미장원이 있는데 개인이 집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8년도에는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U라인 컷트나 머리술을 적게 하는 컷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층이 없는 일자단발머리스타일만 있었어요, 쌀로 배급 받은 걸로 머리오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나무로 파마룻드 대신 고무줄을 걸 수 있게 홈을 파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중화제로는 소금물로 중화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미장원에 가면 손으로 돌리는 전동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머리 자르는 값은 98년 기준으로 5원이었습니다.”

② 새터민2, 함북온성군, 남, 20대

“그 때만해도 전기가 아침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공급되고 부잣집에나 흑백TV가 있었고 머리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리발소에 가면 어떤 스타일로 해 주세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앉으면 손에 잡히지 않는 길이의 각진 스포츠로 남한의 옛날 이

밭소에서 쓰는 바리깡으로 뜯기면서 컷트를 하였고 리발요금은 50전이었고, 아버지 노임이 3원이었는데 강냉이가격이 1kg에 10원이었습니다. 엄마들이 퍼머를 하면 중화제대신 나무를 태우고 난 재를 물에 담갔다가 우려진물로 중화제를 하기도 하고 머리물감으로 물들이고 나서 비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로 머리 감듯이 하고 염색물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머리는 일주일에 한번 감는 정도였고 그냥 맹물로 감거나 정어리비누라는 것을 집에서 만들어 빨래도하고 머리도 감았는데 그러면 그 정어리 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또 청진에 가면 큰 시장이 있는데 20~30명 정도가 컷트보와 의자를 준비해 놓고 시장 앞에 줄지어 서서 머리를 깎아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평양에 가본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옷이 추레하거나 하면 평양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국인이 많아서 평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쫓겨난다고 답하였다.

③ 새터민3, 함북 회령, 여, 30대

“미용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배워서 하는 거지요, 전 집에서 혼자 컷트 하고 파마는 편의봉사시설 가서 엄마는 3원, 저는 5원주고 했어요, 동그란 통에 담긴 포마드를 많이 썼구요.”

④ 새터민4, 평양, 남, 30대

“3달에 한 번씩 많이 길지 않은 길이로 파마를 하였고 파마약은 고수모라고 하는데 파마말고 고수모를 치고 40~50분쯤 있다가 머리가 고슬 해지면 풀고 중화 약을 치고 다시 조금 있다가 머리를 감아요.”

⑤ 새터민5, 함북 무산, 여, 20대

“전에는 삼푸가 없었는데 2년 전에는 중국산삼푸가 많이 있거든요,

삼푸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이 많아졌어요.”

⑥ 새터민6, 청진, 여, 30대

“95년도에 남한에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저는 파마머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사람들은 파도머리를 많이 했지요, 가격은 10원미만 인걸로 기억해요.”

⑦ 새터민7, 함북 무산, 남, 20대

“북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미용사이셨어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머리 길면 비판대상이고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함흥이나 홍남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파마 약을 만들었고 빵강통을 배낭에 넣고 파마 약을 팔러 다녔지요, 냄새가 암모니아가 정제가 안 되어서 청국장 썩은 듯한 것이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중화제는 과망간산칼리움이나 식초에 물을 타서 했어요, 파마는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둥글게 깎아서 설계 도면지같은 비닐을 대고 파마를 말았고 파마 약은 그곳에서 쓰이는 방언 같은 말로 고수모⁵⁹⁾란 말의 진한진달래색 파마 약을 7:3의 비율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빵강통⁶⁰⁾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올 때 마다 가격도 달라서 미용사인 엄마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잘 풀리지 않는 양머리를 주로 하는데 파마말고 한시간정도 있고 중화제하고 또 한시간정도 시간이 걸렸지요, 오래 가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을 더 오래 두기도하구요, 남자들은 머리가 시끄럽지 않게 짧은 스포츠머리를 50원에 잘랐습니다.

파마비용은 돈으로는 150원정도 받고 강냉이로는 1~2kg 으로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걸로만 생활하기는 힘든 평생 가난한 미용사이셨습니다.”

59) 일종의 은어로 ‘고수모’란 말로 불리우고 ‘파마약’을 말한다.

60) 일종의 은어로 ‘빵강통’으로 불리우고 ‘파마 약을 담고 다니는 통’을 말한다

⑧ 새터민8, 평양, 남, 30대

“북한에서는 미용원하면 여자들의 머리취급이 전문이고 리발소면 남자 머리전문입니다.

평양에 있는 창광원이나 문수원 같은 고급미용시설에 가면 미남미녀들의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찍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머리스타일에 따라 청년머리, 혁신머리, 물결머리, 구슬머리, 날파람머리 등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가지 수는 많은데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면 북에서는 남자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수정주의요, 황색바람에 물젖었네 하면서 사상적으로 문제를 세웁니다.

최근에는 사각머리가 유행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에서 유행된 것인지 보기엔 아주 좋은데 중앙당 지시문을 보니 그런 머리를 단속하라고 하네요, 김정일은 아주 엄기적인 사람인데 인민의 취향이 어떻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의 감정의 기복에 따르는 지시문을 아래 당 조직들에 수없이 내려 보내어 청년들과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처녀들의 머리를 민족적 전통을 살린다면서 옛날식으로 길게 땋아 늘이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공장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의 변덕스런 취향 때문에 북한사람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⑨ 새터민9, 함북청진, 남, 30대

“‘북한의 미’, 사실 북한은 유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놀랍죠? 허나 공산정치가 너무 추악스러워 인민이 개성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요.

북한에서는 청바지도 입을 수 없고 머리도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없고 콧수염도 기르지 못하고 유행가도 부를 수 없고, 그런 법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북한인들은 유행에 몹시 민감하답니다.

지금은 아마 남한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다보니 우리가 북한에 있을

뎀 또 옛날 이였을 겁니다, 서울 불바다설이 떠돌 때는 준전시장태라
며 삭발을 하도록 하기도 했지요.”

⑩ 새터민10, 평양, 여 ,30대

“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머리에 묶는 머리를 많이 하고 파마머리를
묶고 다니기도 하구요, 화장은 거의 안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미용사와
리발사의 봉급은 해당 시, 도 정부기관에서 지불하고 봉급의 차이는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급수는 시도정부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시
켜 기술능력에 따라 급수를 책정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시, 도 정부
가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 미용
실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새터민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본 결과 편의 봉사시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 이발사는 시, 도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받고 배치해주는 지역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기술능력에 따른 급수별로
배급이나 월급을 받고 여성들은 미용실을, 남성들은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다.

생활용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정어리비누 같은 것으로 비누나 샴푸
를 대신하고 ‘장마당’에 중국제품으로 샴푸나 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여성은 일자머리카트스타일을 주로하고 남성들은 까
까머리스타일 이었는데 이후에는 머리카락에 층을 내기도 하고 남성은
머리가 조금 길어진 스타일을 하고 있다.

큰 통을 끓여지고 다니면서 파는 ‘고수모’라 불리는 파마 약을 사용
하고 있는데 향이 독하고 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화제
는 식초물이나 소금물을 이용하는 등 재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
다. 사회주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제제 속에서도 미에 대한 욕구나 유행
의 흐름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남북한의 미용 용어 비교 및 머리모양

남북한은 같은 역사, 같은 말과 글, 그리고 같은 생활풍습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주민의 일상적 언어가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질적인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남북한 당국이 추구해 온 언어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언어는 ‘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교양수단이고 원수에 대한 강력한 투쟁도구’로 본다.⁶¹⁾ 북한이 혁명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한자식 단어를 한글 식으로 고쳐 쓰고 있는 데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추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분단 60여 년 동안 민족어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남한에서의 미용용어는 대부분이 영어로 쓰이고 있어 외래어를 한글 식으로 바꿔 사용하는 북한의 미용용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의 미용사가 “동무는 남북머리라서 외태 머리나 중발머리가 어울립니다. 만약 북음 머리를 원하시면 먼저 물비누로 빨고 머리건 조선풍기로 건발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낯설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손님은 짱구머리라서 한 가닥 땅기나 단발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만약 퍼머넌트웨이브를 원하시면 샴푸를 하고 드라이기로 말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미용용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어휘사전’ 과 ‘조선말대사전’ 및 ‘통일 사전’ 등을 참고하여 북한에서 사용되는 미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언어공동연구방안』 ‘언어의 동질성확보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p.13

<표 11> 남북한 미용용어비교

	남한용어	북한용어
머리이름	한 가닥으로 땋은 머리	외태 머리
	두 가닥으로 땋은 머리	쌍태 머리(=가랑머리)
	단발머리	중발 머리
	대머리	빈대 머리
	흰머리	센머리
	곱슬머리	고수머리
	짱구머리	남북 머리
	구레나룻	귀머리
	삭발한 머리형	뺨뺨 머리
	뒤통수	꼭뒤
	파마	볶음머리
	레이어컷	주체머리
미용용품	그라데이션	삼각머리
	가발	덧머리
	분무기	뿌무개
	머리핀	머리빈침
	염색	머리물감
	드라이롤	회전소
	커트보	앞장
	아이론	머리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머리건조선풍기(=건발기)
	파마약	고수모
	속눈썹	살 눈썹
	리본	댕기
	파마루트	말대, 파마막대기
	헤어무스	고착제
	헤어에센스	머릿기름, 머리영양물
화장품	샴푸	물비누
	스킨	살결물
	로션	물 크림
	마스카라	눈썹먹
	립스틱	구홍, 입술연지
	파우더	돌분
	파운데이션	분 크림

	자외선차단제	해빛맞이 화장품
	천연화장품	록색 화장품
의상	아이새도	눈등분
	상하의 붙어있는 원피스	달린 옷, 외동옷
	상하의 따로 있는 투피스	나뉜 옷, 동강옷
	더블버튼	겹섶
	결혼식 때 입는 예복	첫날옷
	한복	조선옷
	스커트	양복치마
	블라우스	양복적삼
	스카프	목수건
	멜빵	멜바, 질바
	멜빵바지	멜끈 바지
	브래지어	가슴 띠
	스타킹	하루살이양말
	나들이옷	갈음옷
	하복	여름살이옷
	겉치마	옷치마
	드레스	나리옷
	팬티스타킹	양말바지
	코르셋	몸매띠
	칼라	목달개
	단긴 깃	차이나칼라

이외에도 북한의 ‘우리말 어휘 및 표현’ 1985년 제1편, ‘대상별 어휘 및 표현’에서는 다양한 머리모양과 머리이름, 머리와 관련한 속담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남한에서는 생소하고 사용되어지지 않는 표현이 상당 수 있다.

<표12> 예를 들면 ‘고수머리’와 ‘반고수머리’는 남한에서의 ‘곱슬머리’나 ‘반곱슬 머리’를 의미하고, ‘다박머리’는 머리가 다복한 머리를 일컫는데 이보다 큰말의 표현은 ‘더벅머리’가 있다. ‘다팔머리’는 다팔다팔 흔들리는 머리털을 일컫는데 이보다 큰말의 표현은 ‘더떨머리’가 있다. 이 외에 ‘풀머리’는 풀어헤쳐 거두어 올리지 않았거나 땅지 않은 머리털을 말하고, ‘쭉대머리’는 긴 머리칼이 흐트러져서 어지럽게 된 머리를

말한다.

남북한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보니 남한에서는 현재 거의 쓰여지지 않는 표현들이다. 또 ‘살쩍’이라는 것은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난 머리털을 말한다. ‘덧머리’는 본래의 머리우에 덧드리는 머리털, ‘밑머리’는 달비나 치마머리가 아닌 본래부터 있는 머리털, ‘땀머리’는 밑머리에 덧대는 머리털, ‘맨머리’는 아무것도 안 쓴 머리를 말한다.

<표 12> 여러 가지 머리 이름

머리이름	내용
고수	곱슬머리
반고수	반 곱슬머리
다팔머리	다팔다팔 흔들리는 머리털
다박머리	머리가 다복한 머리
풀머리	풀어헤쳐 거두어 올리지 않았거나 땅지 않은 머리털
쭉대머리	긴 머리칼이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
살쩍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난 머리털
덧머리	본래 머리우에 덧드리는 머리털
밑머리	달비나 치마머리가 아닌 본래부터 있는 머리털
땀머리	밑머리에 덧대는 머리털
맨머리	아무것도 안 쓴 머리
센머리	흰머리

남자 머리모양으로는 <표 13>과 같이 가른머리, 높은머리, 막머리(기르지 않고 뽁뽁 꺾는 머리), 넘긴머리, 상고머리, 까까머리, 낮은머리, 치머리 등이 있고, 여자 머리모양으로는 파마, 가랑머리(=랑태머리), 단발머리, 꽃머리, 도투락머리, 바둑머리, 종종머리, 트레머리, 엷은머리, 모두 머리, 큰 머리 등이 있다.

<표 13> 남성의 머리모양

남성의 머리모양	가른머리, 넘긴머리, 상고머리, 까까머리, 낮은머리, 높은머리, 치머리
-------------	--

여자머리모양으로는 <표 14>와 같이 파마, 가랑머리, 량태머리, 단발머리, 꽃머리가 있고, ‘도투락머리’는 도투락땡기를 드린 머리를 말하고, ‘바둑머리’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조금씩 모숨을 지어 여러 갈래로 땡은 머리, ‘종종머리’는 아이들의 머리 땡는 법의 한 가지, ‘트레머리’는 꼭 뒤에 틀어 올린 머리, ‘엷은머리’는 쪽지거나 틀어 올린 머리, ‘모두머리’는 머리털을 외가닥으로 땡아서 쪽진 머리, ‘큰머리’는 결혼식 때, 새색시의 본 머리우에 크게 틀어 엷은 땡머리를 말한다.

<표 14> 여성의 머리모양

여성의 머리모양	파마, 꽃머리, 트레머리, 가랑머리, 도투락머리, 엷은머리, 량태머리, 바둑머리, 모두머리, 단발머리, 종종머리, 큰머리
----------	---

머리의 병적인 증세와 관련된 이름으로는, ‘바람머리’는 바람을 쐬면 곱이 아픈 증세, ‘숯머리’는 숯내를 맡으면 곱이 아픈 증세, ‘채머리’는 병적으로 머리를 자꾸 흔드는 증세를 말한다. ‘머리와 관련한 말’로는, 머리그물, 머리동이, 머리밑, 머리수건, 머리채, 머리꼬리, 머리끄덩이, 비녀, 머리빈침, 땡기, 꽃땡기, 머리술, 머리빔, 머리단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머리와 관련한 속담은 ‘머리 없는 놈 땡기치레 한다.’는 실속 없이 걸치레만 하는 꼴을 비웃는 말이고,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는 말은 시초부터 조리가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고, ‘대가

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는 기본적인 것만 처리하면 그것에 딸린 부차적인 것은 저절로 함께 처리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등이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말비유(1)’ 1988년 학우서방에서 살펴보면, “우리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고 울릴 수도 있으며 웃길 수도 있습니다.⁶²⁾ ‘우리말비유’는 우리말을 잘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⁶³⁾ 설명하고 비유의 수법을 통한 표현을 실어놓은 책으로 그 중 사람의 머리와 관련한 비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믐밥 같은 머리, 명주처럼 부드러운 머리, 구름처럼 하얀 머리, 새 쫓지 같은 머리 꼬랭이, 노루 꼬리만 한 머리태, 추녀처럼 드리운 머리 카락, 파도처럼 넘어간 반고수머리, 참나무처럼 끝이 말려든 머리, 삼쌀 개 같은 고수머리, 수팜송이처럼 자란머리, 굴뚝쭈시개 같이 된 머리, 여우대가리 같은 머리, 머리가 덩덕새 같다, 임자 없는 무덤의 잔디처럼 된 머리카락, 머리가 겨 묻은 개 대가리 같다, 뒤옹박 같은 대머리, 잠자리 대가리 같은 둥글해 보이는 머리, 뒤 골이 주걱처럼 넓적하다, 끝방망이 같이 뒤 골이 나온 머리, 뒤통수에 달린 뿔처럼 달랑거리는 쌍태 머리 등등 많은 머리와 관련한 비유들이 설명되어져 있다. 대부분이 동물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많았고 얼굴을 비유한 것으로는 박꽃 같은 해사한 얼굴, 주로 꽃이나 과일, 달 등을 비유한 것들이 많았다.

남북의 언어표현이 많이 다르지만 통일을 향한 발걸음의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언어의 이질화극복을 위해 쓰는 ‘남북겨레말 큰 사전’ 사업이 2006년부터 진행을 시작하여 2013년 발간을 목표로 남북 공동 국어사전 ‘겨레말 큰 사전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북측의 제한으로 1년에 4번의 교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한사전의 ‘표준말대사전’과 북한사전의 ‘조선말대사전’을 통합하는 ‘겨레말 큰 사전’ 편찬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62) 조선로동당(1979),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평양 ; 조선로동당, p.5

63) 학우서방(1988), 『우리말 비유』, 평양 ; 학우서방, p.1

것은 사전에 실을 어휘를 정하는 일이다. 남북의 사전은 모음과 자음의 배열순서 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올림말 선정에만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올림말 30만여 개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통일시대에 필요한 어휘를 우선 선정하고, 자모음의 순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북측은 ‘ㅇ’을 모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남한의 격자음 순서, 두 음법칙 등의 사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이다.

특히, 올림말 선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반영된 어휘문제로 예를 들면 ‘아버이’란 뜻이 남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는 분’ 이라는 뜻이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겨레말 큰 사전에서는, 어휘는 신되 이념을 반영하는 뜻의 경우는 사전에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단순히 이념적 문제에서 벗어난 동음 이의어의 경우 남북에서 쓰는 뜻 모두를 수록하고, 북측의 속담과 관용구는 분단이후 남측과는 달리 북 당국에서 북한주민을 통치하는 목적에서 많이 생겨난 말로 사회주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쌀은 사회주의다’와 같은 말은 수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⁶⁴⁾

60여년의 분단의 세월만큼 남북한의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어휘의 통합과 집대성을 넘어 남북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통일이 되기 이전에 언어의 통합을 이루어야 문화적 충돌이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의 통합이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4) KBS ‘남북의 창’, 2008년10월13일

VI. 결 론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정권교체나 여러 사회 현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질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70년대 이전의 지나친 반공교육은 북한주민들은 뿔 달린 외계인처럼 인식시켰고, 이후에도 철저한 북한의 폐쇄적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었다. 한 시대의 문화는 가치관, 이념, 생활양식, 예술 양식,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 변화의 속도와 성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미용은 이러한 문화 현상을 잘 나타내는 요소로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

특히 여성의 미용분야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의 차이를 보였다. 2008년 현재 탈북자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과거보다는 북한사회가 많이 노출 된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도 멋쟁이들이 있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욕구는 머리모양이나 화장, 의상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유행의 속도는 완만하지만 연령층과 시대의 흐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후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언론은 도구로서의 언론이 분명하지만 아무리 선전, 선동을 한다고 하여도 그걸 보는 사람도 북한주민이므로, 북한의 실상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미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이질화된 미용용어를 비교분석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유행스타일과 미용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국내보도 된 기사와 북한자료를 정리하여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있다.

국내 보도된 기사는 2000년 이후부터 2008년 최근까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새터민동호회 회

원들과 새터민 미용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미용계의 실상을 새터민의 구술증언을 통해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북한의 실상을 미용인의 견지에서 접근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꾀하는데 일조하고 후학들의 북한미용 연구의 바탕이 되고자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의 용어는 같은 역사, 같은 말과 글, 그리고 같은 생활풍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당국이 추구해 온 언어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북한에서 언어는 ‘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교양수단이고 원수에 대한 강력한 투쟁도구’로 보고 있고 북한이 혁명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한자식 단어를 한글 식으로 고쳐 쓰고 있는 데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학습하고 남한은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주로 학습하다보니 한글언어의 차이 뿐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공통분모가 없어 새터민들도 남한에 와서 영어로 된 언어가 많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드라이 물’은 ‘회전소’, ‘아이롱’은 ‘머리다리미’, ‘스킨’은 ‘살결물’, ‘더블버튼’은 ‘겹섭’등 남한의 영어로 된 표현과 북한이 외래어를 한글식으로 바꿔 사용하는 차이가 있어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폐쇄된 북한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본능적 욕구는 표출되었으며 시기별로 영화나 TV등을 통해 유행스타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옷을 입으면서 단순한 일자머리나 쪽머리를 하고 양장을 입으면서 조발머리, 옥수머리, 수국화머리 등이 유행하다가 생머리 훑음조발처럼 생머리가유행하고, 다시 과마를 약하게 하는 스타일로 중간머리나 끝머리과마가 유행하는 등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행의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미에 대한 욕구는 완만하면서도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상의 침투를 우려해 사회주의 양식에 맞는 머리스타일을 강요하면서 남성들의 장발을 단속하고 여성들의 머리길이는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단발머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로 인해 북한으로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를 겪으면서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법, 미용성형 등의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장마당에서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중국제품 유통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미용사’에 대한 인식은 양호한 편이며 남한과 북한의 미용사의 차이는 북한은 ‘직장’의 개념이고 남한에서는 ‘자영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화장품 시장이나 피부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당간부나 신흥부유층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일반여성들은 화장품을 구입하기엔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7.1’조치 이후에는 일률적인 업무가 아닌 개별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을 인정받아 부족하지만 서비스정신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양한 미용기와 컴퓨터시뮬레이션의 도입 등 여러 방면으로 고객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커트스타일은 없지만 미혼녀와 기혼녀의 헤어스타일을 목계적으로 구분하였고, 턱용 퍼머약 원액을 덜어서 구매하고 양젓물이나 소금물, 식초물 등을 이용해 중화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5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논의들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인 부문의 논의들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북한미용의 실상을 주제로 한 주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통일이 가까이 왔음을 감안할 때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알아 가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국내언론에 소개 된 북한 미용기사 외에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하던 탈북자 ‘새터민’의 구술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다. 물론 여러 여건으로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북한의 미용과 관련 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향후 북한 미용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서적)

강정구(1990), 『북한의 사회』, 서울 : 을유문화사

고태우(1996), 『북한의 이해』, 서울 : 집문당

공업출판사(1985), 『우리 말 어휘 및 표현』, 평양 : 공업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1981), 『백과전서』,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국토통일원(1971), 『북한의 생활실태』, 서울 :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1971), 『북한의 실질소비생활분석』, 서울 :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언어공동연구방안』, 언어의 동질성 확보를 중심으로, 서울 : 국토통일원

김선임 외(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현대 북한여성, 서울 : 대동

김원홍(2007),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통일연구원

나춘호(1995), 『통일사전』, 서울 : 예림당

문숙재(1994),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11권

북한연구학회편(2006), 『북한의 사회』, 서울 : 경인 문화사

사회과학출판사편(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손봉숙(1999),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 도서출판 나남

연합뉴스(2002), 『북한어휘사전』, 서울 : 연합뉴스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통합과정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이태영(1988), 『북한여성』, 서울 : 실천문화사

임순희(2005), 『식량난이후의 북한여성의 삶의 변화』, 서울 : 평화연
구

임채욱(2004), 『북한문화의 이해』, 서울 : 자료원

전영선(2006), 『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 역락

조선로동당(1979~1984), 『김일성저작집』 제1권~26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통일부 통일교육원(2002),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2005),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우서방(1982), 『우리말비유』, 평양 : 학우서방

(국내논문)

김여경(2001),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조선옷의 전통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종미(1993), 『TV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상』,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권기영(2004), 『현대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젠더와 문화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28권.8호

류은주(1995), 『북한여성의 사회적위상과 외양변화에 관한 연구』, 동주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박정현(2007),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변화 연구』,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현선(1988),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신예정(200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이경하(1993),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1985년부터 1992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혜원(2007),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 경원대석사학위논문

임선희 (2005),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최은주(2007), 『소설 속에 나타난 북한여성의 일상생활 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최효임(2002),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본 북한여성 이미지』,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영상)

조선중앙텔레비전

북한영화 ‘봄 향기’ ‘처녀 리발사’

MBC 통일전망대

EBS 코리아 코리아

KBS 남북의창

(인터넷사이트)

www.naver.com

www.nate.com

www.daum.net

www.kplibrary.com

(신문)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뉴시스, 서울: 뉴시스

데일리NK(www.dailynk.com)

동아일보(www.donga.com)

연합뉴스, 서울: 연합뉴스

조선일보 (nk.chosun.com)

밀양뉴스(www.imiryang.com)

한겨레뉴스(www.hani.co.kr)

세계일보(www.segye.com)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로동신문」, 평양 : 로동신문사

「천리마」, 평양 : 천리마사

「경공업」, 평양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금수강산」, 평양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면담자)

새터민1 (20대) 함북무산거주

새터민2 (30대) 함북회령거주

새터민3 (30대) 평양거주

새터민4 (20대) 함북무산거주

새터민5 (20대) 함북온성거주

새터민6 (30대) 함북 청진거주

새터민7 (30대) 평양거주

새터민8 (20대) 함북청진

새터민9 (30대) 평양거주

새터민10 (30대) 함북회령거주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Beauty Condition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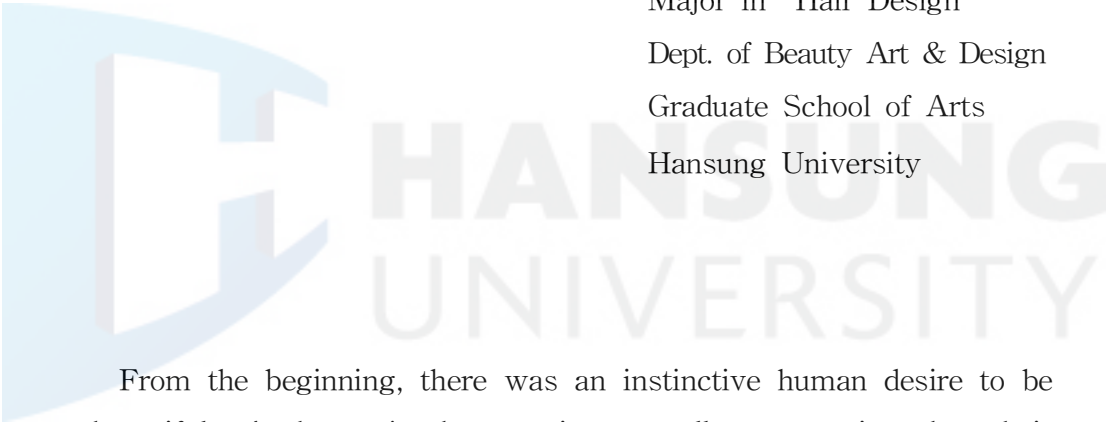
Park, Un Ju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stylized blue 'H' shape with a white square in the center. To the right of the logo,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arge, light blue, sans-serif font, serving as a background watermark.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an instinctive human desire to be beautiful. A human's beauty is normally expressing by their external appearance, like they are trying to make themselves look good by hair style, make up, and clothes. An era's culture appears to reflect things like values, ideology, lifestyle, art form, economical, social, political, etc. The speed of the change and character show variety of aspects, among these, beauty culture is an well indicated element which is keep alternating and product of material, social and mental. The standard of beauty can be personally prefer, but it is changing by social awareness.

Individual's external appearance can also be the standard of judging his/her social position. So that a human's beauty culture appears

differently by the time and community. Today, our country, which is the only divided country among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or 60 divided years of having different politic, economy, and culture, now we are in a serious situation of dual living. Providing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Not feeling the necessity of advance preparation for politics and economics, but many-sid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s beauty culture is needed.

Even though, North and South have the same history and language, since dividing into parts, the language that we use begun different. As the result of comparing North and South Korea's language and looking into North Korea's beauty industry, knowing North Koreans lifestyle as a beauty artist is as follows.

First of all, North Korea's vocabulary is basically corrected from Chinese character and have a lot of words meaning revolution. Above all things, because they do not use English which is a world common language, the words being used in beauty industry is different. It causes serious problem in commun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remaining as a subject.

Secondly, looking into beauty industry. Owning a beauty salon individually is not allowed in North Korea, every beauty salon is running by the government. They have a chart showing hair style numbers with its names hanging on the wall, so people can choose what they want. Men and women are being regulated not to have long hair, and women can not ware short skirt. It is advised to have short hair for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Dying hair is only being done to cover white hair and criticising that the light color is for those who are in a capitalist country. Because, the supplies of women makeup is not much and expensive, it is normally being used among executive and wealthy people, can see ordinary women

does just basic make up. Taking 1989 Pyoung Yang festival as an opportunity, North Korean's hair style, make up and clothing got better and various. However, it is strongly understood as a capitalist style. An interview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 was more specific and realistic. The supplies of industrial product not being done freely, Chinese products are coming into market.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ming from Chinese border line,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life in North and what we can see and hear from TV or news papers, however it would be pretty much the same.

